호텔형 추모관 개관
성주 우성추모공원·묘원
054-933-1120 성주군 선남면 관용로 470-44/54

每日新聞
매 일 신 문

곽중에 아프면 곽병원
단디 기억하이소!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음력 12月 30日 己卯) 제24135호
imaeil.com 구독 신청 080-711-2002

"후한 점수 방심 안 돼…의정활동 속도 내라"

〈70%대 1명 60%대 2명 40% 이상 15명〉

본지 TK 의원 만족도 조사 분석

대구 유권자 응답 비협조적 상대적으로 성적 낮게 나와 경북은 고령층 많아 '고평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여론조사에서 낙제점은 면했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북의 경우 고연령층이 많아 전체 유권자들의 실제 평가보다 더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매일신문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 여론조사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 보도했다. 여론조사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천63명, 11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각 오차범위 ±1.3%포인트(p), ±1.2%p였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대구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70.1%)가 가장 높았다. 대구에선 같은 당 추경호 의원(달성)이 최고점(60.6%)이었으나 임 의원보다는 10%p가량 낮았다. 나머지 대구 의원 중에서는 40%대가 8명이었고 30%대는 3명이었다. 경북에선 60%대 1명, 50%대 5명, 40%대 2명, 30%대 4명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응답자 연령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활동이 더 뛰어났다기보다는 고령층이 많은 경북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대구에서는 50대 이상이 51.5%였던 반면 경북은 약 7%p 많은 58.1%였다. 만 18세~20대와 30대는 대구에선 30.6%였으나 경북은 25.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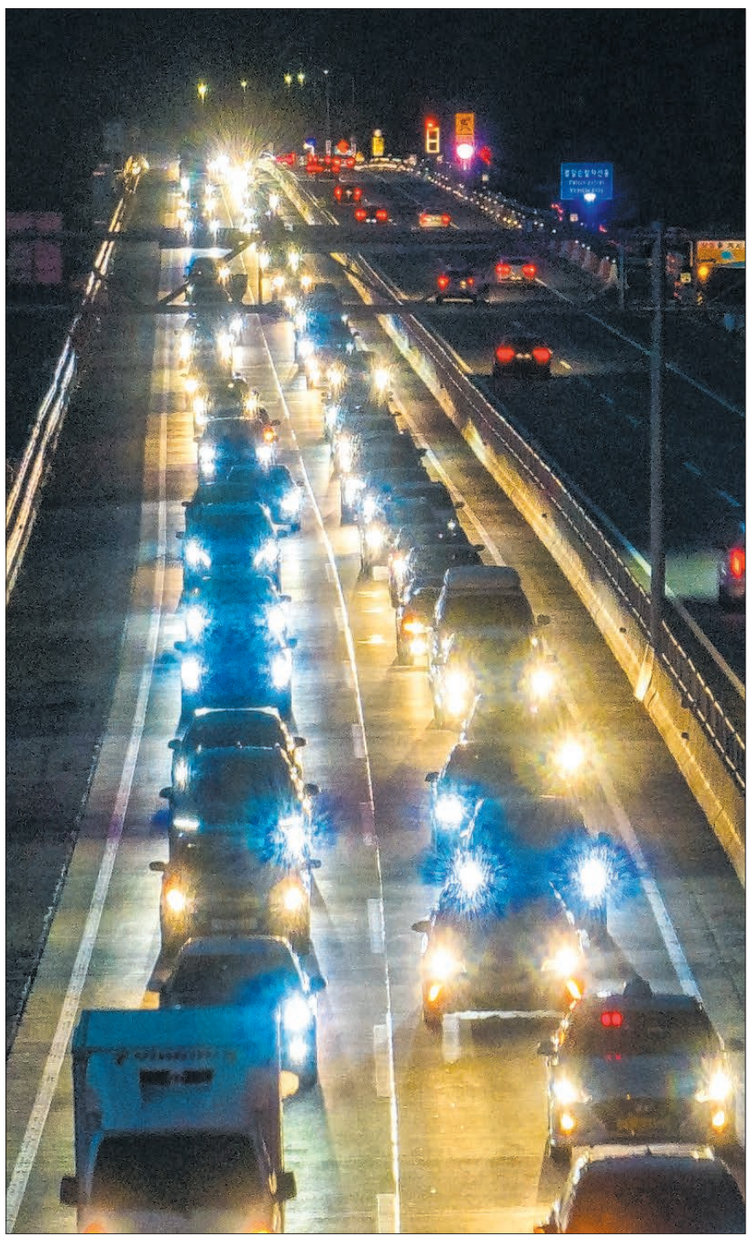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 성향 의원에게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고연령층일수록 여론조사에도 협조적이다. 전 연령층 가운데 만 18세~20대와 30대가 많았다면 대구와 경북의 성적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력과 정치 성향 역시 변수다.

대구의 낮은 응답률도 의원들의 성적표에 영향을 끼쳤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무선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표본이 충분치 않아 일부는 유선으로 전환했다. 대구의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비율은 78.6%이고, 유선(RDD) ARS는 21.4%였다.

반면 경북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비중은 90.8%, 유선(RDD) ARS는 9.2%였다. 여론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고학력층·진보 성향이 경북보다 대구에 더 많아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한길리서치 관계자는 "인구 구성 비율에서 경북에 50, 60대가 많으니 똑같이 세대별로 만족도를 조사해도 경북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다"며 "지역 정치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 지역구 의원 조사에서도 협조해줄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분위기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귀성길 안전운전하세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이 고향으로 가는 귀성 차량들로 가득 차면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尹 '37조 투자' 역대급 경제외교 성과

UAE 순방 마무리 48건 MOU
다보스포럼선 "1호 영업사원"
정부-사절단 한 팀 협업 결실

21일 귀국해 새해 첫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내내 다수의 수출계약·양해각서(MOU) 체결, 투자 유치 등 경제 외교에 '올인'했다. 취임 후 세 차례 해외 방문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지만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은 철저한 '경제 일로'를 걸었다. 3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외쳤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19일(현지시간)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협업해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성과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00억달러(약 37조2천600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게 꼽힌다. UAE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3건의 MOU가 체결된 것을 비롯해 총 48건의 크고 작은 MOU 및 계약도 이뤄졌다.

이 수석은 "UAE 국빈 방문으로 역대 UAE 순방 최대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에너지·방산 등 전통의 협력 분야를 넘어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신산업까지 협력이 다변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인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두 번째 방문지인 스위스 일정도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취리히에서 동포간담회를 마친 뒤 18~19일 이틀간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접촉면을 넓혔다.

특히 글로벌 기업 CEO 오찬에는 우리 측 6개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15개 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해외 기업인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제 사무실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달라"며 적극적인 세일즈를 벌였다.

순방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이 함께한 점은 경제에 힘을 실은 이번 순방의 성격을 선명히 보여줬다. 재벌 총수들과 경제 각료들은 UAE 국빈 방문뿐 아니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공식 일정까지 줄곧 함께했고, 정상 외교 시 기업인들은 주인공 대접을 받았다.

이관섭 수석은 "순방 뒤에도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투자 협력 포럼을 가동하고 수출전략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실내 노마스크 30일부터 시행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의무
'7일 격리' 단축 논의도 본격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아지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완화의 예외 장소인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에 대한 논의는 위기 단계 및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만 남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 이후 2021년 11월 당국은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고, 지난해 1월에는 7일로 줄였다.

앞서 국회 등에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온 만큼 실내 마스크 완화 이후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화되는지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명절 차례상 茶 중심, 상다리 휘는 제사상과 달라"

국학진흥원, 올바른 계승 강조

조상에 명절 왔음 알리는 의식 축문도 읽지 않는 게 전통예법 퇴계종가, 술·떡국·포·전·과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차례상'과 '제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통 제례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다.

'차례'(茶禮)는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돌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이때 '차'(茶)를 올렸던 전통에서 유래된 용어다.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로, 명절 차례상에는 차가 중심이 되고 기일 제사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올려진다.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은 "차례는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이고, 제사는 기일을 맞은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달래는 추모의례"라며 "예법 지침서인 '주자가례'에도 차례상에는 술 한잔, 차 한잔, 과일 한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번만 올리고 축문도 읽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간결했던 차례음식이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고 유통구조가 발달하면서 점차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에서 차례상은 사라지고 제사상만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동 퇴계 종가에서는 설 차례상에 술·떡국·포·전 한접시·과일 한쟁반 등 5가지로 상차림을 끝낸다. 과일 쟁반에는 대추 3개, 밤 5개, 배 1개, 감 1개, 사과 1개, 귤 1개를 담는다. 주자가례에 비해 차가 생략됐고, 떡국과 전, 북어포를 추가했다.

앞서 한국국학진흥원은 2017년부터 제례문화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서'(禮書)와 종가, 일반 가정의 설차례상에 진설하는 제수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전통 예서와 종가의 5가지 제수에 비해 일반 가정의 차례 음식이 평균 5~6배(25~30가지)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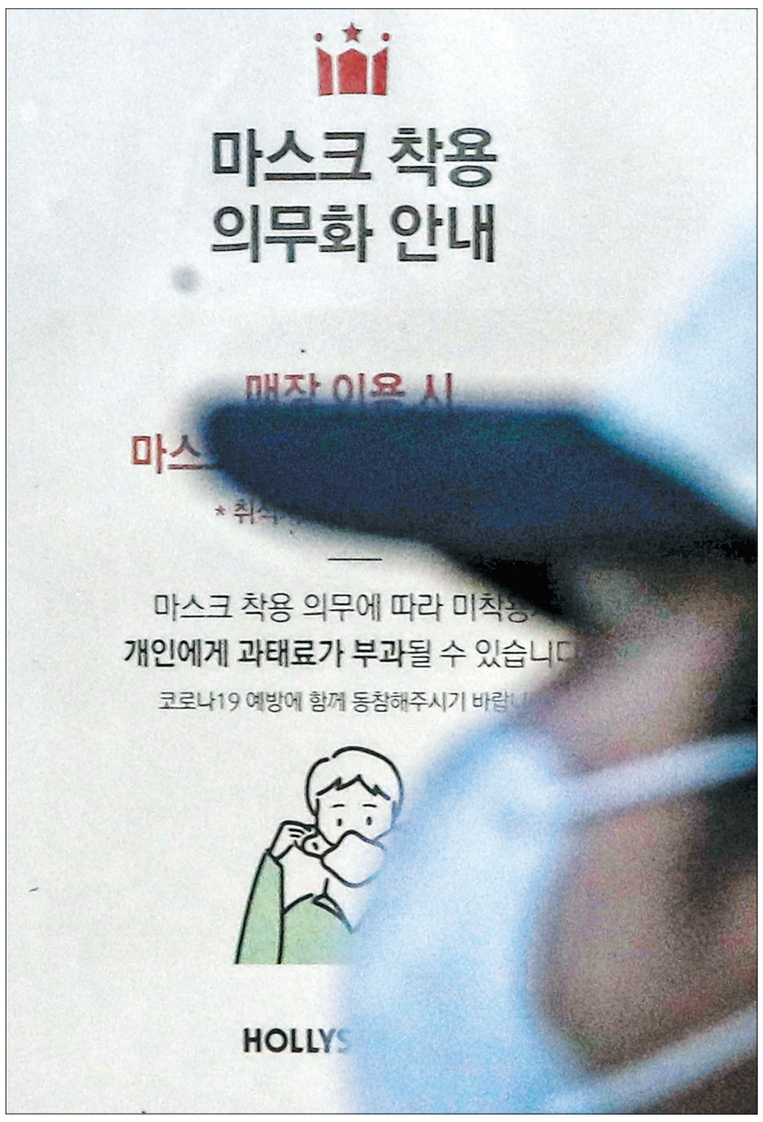
전통 격식을 지키는 종가에서는 술·떡국·전 한접시·과일 한쟁반 등 주자가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차례상을 마련한다. 이에 비해 세세한 예법이나 격식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는 차례라는 형식만 따를 뿐, 조상을 잘 대접하고 모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김미영 연구위원은 "전통예법에서는 모자라는 것보다 넘쳐나는 것을 경계했다"며 "차례상에 술과 과일 등 간단한 음식을 차리지 않고 제사음식을 잔뜩 올려놓으면 '참람'(僭濫·지나치거나 넘침)이라고 해서 '비례'(非禮·예가 아님)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례상의 본래 모습을 되살린다면 예법도 지키고 차례음식 장만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부터라도 차례상에서 제사음식을 과감히 걷어내는 것은 어떨까?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한국국학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과 제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제사문화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퇴계종가의 차례상 차림. 매일신문 DB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동대구역의 한 상점 입구에 '매장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2imaeil.com

음악실 합창·체육관 응원 땐? 교육부 "27일 안내"

실내 노마스크 30일 시행

택시, 환기 힘들어 착용의무 유지 유증상자·고위험군도 수칙 지켜야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지만, 대중교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방역 수칙을 기존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에는 택시를 비롯해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시설도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안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배포되면, 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세부 지침에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설 전후 누적 확진자 3천만명 돌파 전망

20일 기준 2995만 5366명 기록 국민 5명 중 3명꼴로 감염된 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번 설을 전후해 3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년째인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7천408명, 누적 확진자는 2천995만5천366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 5명 중 3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시점은 지난해 2월 6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48일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불과 한 달 반만인 같은 해 3월 23일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1천만 명이 더 확진돼 지난해 8월 3일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 다시 5개월 가량 지나면서 총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 총 확진자 중 3분의 2는 지난해 초 이후 발생한 것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규모는 중국 등의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인도, 프랑스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감염 경험자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방역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2차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10명 중 5명 정도만 공식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줄 알고 있던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감염 이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현정 기자

2023년 제1회 시험공고 예정
• 시험일자 : 2023년 4월 8일(토)
• 원서접수 : 1월25일 ~ 2월10일
(본원 원서대행 접수중)
검정고시·수능
수능반
고득점학생반
유학생반
성인반
속성반
4월·8월 시험대비 / 중졸·고졸 1년만에 합격 / 과락제 폐지 / 평균 60점 합격 ➡ 대학진학
개원 20주년 수강료 특별할인이벤트!
중졸 고졸 수능 30% 할인
합격시까지(2년) KBS동영상+교재무료
고졸고득점 + 수능 시험대비
엘리트반 개강!
차별화된 수업 커리큘럼(8교시 수업)
내신1등급(평균97점 이상) + 수능최저등급으로
경북대·in 서울 대학 진학
• 수업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8교시)
• 마 감 : 각반 10명 담임제 선착순(문과·이과)
신설반 2023년 8월 시험대비
중3졸업생 고졸신설반 개강
• 중3 졸업생만을 위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고졸 고득점을 위한 학습전략 !!
• 중3신설반 : 고졸합격반/고졸고득점+수능(종일반) 영수기초수업(레벨테스트) 1:1개인지도
• 개강일자 : 매월 1일
• 모집인원 : 각 반 정원 12명(지정석)석착순 접수
중졸/고졸 특별반
속성합격반 (1:1수업)
• 수업시간 : 주1일~2일 오후반·야간반·주말반
• 대 상 : 자영업·지방거주자(대구·경북·경남) 시간·거리 불편한 분 (비밀보장)
2024년 수능반 개강!
• 시험일자 : 2023년 11월 16일(목) 확정
• 모집대상 : 중3졸업자·유학생·고교자퇴생·검정고시합격자
• 모집인원 : 각반 10명(문과·이과) 지정석
• 특별혜택 : 평가원 모의고사 실시(6월·9월) 매월 사설모의고사 실시 / 매월 모의고사 성적표 우송 수능원서접수 / 수시·정시 입시전문컨설팅
• 학생관리 : 담임제·매일 출·결관리/지각, 결석시▶부모님 통보
• 교 재 : EBS교재(수능기초+심화+특강+완성)
• 수 강 료 : 개원20주년 수강료 할인이벤트 실시!
www.grgosi.co.kr
대구 고려학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05-4, 5층(주차장 완비)
수성점 746-1212
수성구청역 3번출구 (범어약국5층)
학원전용주차장 (학원건물 뒷편)
대구은행 송원학원
← 범어네거리 수성구청역 만촌네거리 →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KBS방송국 ↓ 3번출구 하나로마트 고려학원 학문당학원 농협
범어약국 5층 수성점
제2702호. 수강료 중졸 720,000원/고졸 810,000원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임상교수 역임
모발이식
닥터헤어Lee 의원
원장 이정호 2·28기념중앙공원 옆 053-422-5824

尹 "NPT 체제 존중 현실적…美 확장 억제 신뢰"

〈핵확산금지조약〉

다보스 현장서 WSJ 인터뷰

'한반도 비핵화' 의지 강조 "일본 안보 강화 문제 안돼 가까운 시일 내 중국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대내외적 파장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발언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각오 등을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이를 두고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한 바 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尹대통령, 양자 석학들과 대화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대 부총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뿌리산업에 섬유 포함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김용판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의 주력 산업인 섬유업이 뿌리산업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판(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동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미포함돼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호 기자

울산 순회 나선 김기현…안철수는 MB 예방

설 앞두고 與 당권경쟁 가열

김 '연·포·탕' 내세워 지지 호소 안 "당 분열 양상에 굉장히 우려"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연휴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기현·조경태·윤상현 의원은 이날 PK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기반 넓히기에 들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가운데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일 울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드리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설 연휴 선거 인사를 쏘아 올렸다. 김 의원은 울산 남구의 복지관과 재래시장 등 일곱 곳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김 의원은 연휴 내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적극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윤심(尹心)을 업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니, '공천공포'를 반박하듯 포용을 내세워 '1위다움'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 당내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했다.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데다, 친이(친이명박)계 정치인과 MB 정권 공직자 상당수가 현 정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신다"며 "전대가 끝나더라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UAE(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을 처음 시작하시지 않았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경태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3폐 개혁'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상현 의원도 경남에 내려가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우호 기자 uho@imaeil.com

나경원 "尹대통령께 깊이 사과"

"해임 본의 아니라 한건 제 불찰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 끼쳐 송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나 전 대표는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累)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면서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해임은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우호 기자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 앱 아이폰용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DGB Index 〈20일〉

코스피	2,395.26	(+14.92P)
코스닥	717.97	(+5.08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330	(+0.082%P)
환율 (원·달러)	1,236.0	(+3.4원)
금값 (1g)	76,530	(+680원)

여기저기 여행가방 끄는 소리 "명절 분위기 나네요"

르포 거리두기 없는 설, 설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0일 오후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고향을 찾아 왔거나 찾아 나서는 시민들로 붐볐다.

저마다 여행용 가방과 선물상자를 양손에 든 시민들은 동대구역 일대를 바쁘게 오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식당가는 여행길에 오르기 전 요기를 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동대구역 광장에는 여행용 가방 바퀴 구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마저 한산했던 것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귀성객 박모(34·대구 서구 평리동) 씨는 "한동안 명절에도 왕래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절 분위기가 예전만 못했는데 동대구역이 붐비는 걸 보니 이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선물 꾸러미 든 인파로 북적 연휴 교통량 40% 급증 예상 오늘 버스·도시철 연장 운행

코레일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설 특별수송 하행선 예매율은 92.9%를 기록했다. 경부선이 97.4%로 가장 높았고, 전라선 95.9%, 호남선 94.5% 등이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차량 통행량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0~24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50만 1천대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8.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량은 설날 당일인 22일 65만6천대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설 당일(1월 22일) 42만7천대에 비해 53.6% 높은 수치다.

교통량 증가로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의 경우 21일 내내 지·정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객 편의를 위해 대구시는 21일 서대구역과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장 운행한다.

대구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오전 1시 10분, 동대구역을 거치는 도시철도 막차는 오전 1시 30분이다.

1호선 동대구역에서는 오전 12시 10분, 12시 30분, 12시 50분, 오전 1시 30분에 설화명곡방면과 안심방면으로 동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도시철도 운행시간 역시 연장된다. 대구교통공사는 평소 종착역 도착기준으로 자정까지 운행하던 도시철도를 1호선은 오전 2시 4분, 2호선은 2시 11분, 3호선은 2시 18분까지 연장운행한다고 밝혔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많이 컸네, 내 강아지"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동대구역에 마중 나온 할아버지가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대구에 도착한 손자를 반갑게 안아주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울산서 車 렌트, 대구로 107㎞ 무섭게 달린 15세

"애들이 운전" 신고로 6명 검거

울산에서 렌터카를 빌려 대구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오전 3시 46분쯤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에서 A(15) 군 등 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구파티마병원 인근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고, 트렁크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당시 A군은 면허도 없이 대구까지 약 107㎞를 운전해왔으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은 모바일앱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나 A군 이외 다른 운전자가 있는 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기 기자

"올 수능 응시생 41만명대…역대 최소"

고3 최저치에 재수생 감소 추정 지방대 신입생 충원 더 힘들 듯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00일 앞둔 가운데 올해 수능 응시생이 역대 최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종로학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수능 실제 응시 비율, 당해년도 졸업생 대비 재수비율 등을 종합해 올해 11월 16일 시행될 2024학년도 수능에 41만5천~41만9천 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31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당시 응시생이 1차 시험 71만6천326명, 2차 시험 72만6천63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시생이 40% 이상 줄어든 셈이다. 현재까지 역대 최소 기록은 2021학년도에 기록한 42만1천34명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추산 기준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천271명이다. 고3 중 수능 응시생 비율은 최근 10년간 70%대 초반인 만큼, 2024학년도 고3 응시생은 28만4천 명대로 역대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수능 재수생은 13만~13만4천명대로, 2023학년도(13만9천385명)보다 5천~8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졸업생 수가 줄어 재수 대상 자체가 줄기도 했고, 2023학년도 정시 지원자 감소로 최종 탈락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재수생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역별로 2024학년도 고3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대전(-10.1%)이고, 이어 서울(-9.6%), 광주(-9.1%), 부산(-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7.2%)는 17개 시·도 중 8번째로 감소폭이 컸고, 경북(-5.2%)은 15번째였다. 전년도 정시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3대 1 미만)을 보인 대학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북과 부산으로 각각 9곳이었다. 대구에는 한 곳 있었다. 고3 학생 감소로 지역 대학들은 2024학년도 신입생 충원에 더욱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파업 동참하라" 협박·운송 방해 화물연대 간부·조합원 9명 기소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이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운송사 상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20일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정차시키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형욱 기자

"사드기지 접근, 요격된 드론 대공 혐의 희박"

軍 수색 종료, 경찰이 탐문키로

경북 성주군 사드(THAAD·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접근했다가 요격된 드론을 찾지 못하고 수색작전이 종료됐다.

20일 육군 2작전사령부 등에 따르면 군, 경찰, 방첩 당국으로 구성된 도합동조사팀은 지난 17일 사드 기지로 접근한 드론 비행체에 대공 혐의점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은 이에 따라 수색작전을 종료했다.

이날부터 경찰이 CCTV 영상 확인과 탐문으로 비행 주체에 대해 수사하고 기체 수색도 맡는다. 미군은 무인기 대응작전 과정에서 기체를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사드 기지의 주한미군 초병이 민간 상용 드론 1대가 기지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물체는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십㎝ 크기의 소형 드론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군은 전파교란 재밍건으로 대응했고, 기체는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과 경찰이 19일까지 하루 200여 명을 투입해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 등 사드 기지 주변에서 기체를 수색했으나 드론 잔해를 찾지 못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imaeil.com

1 · 등 · 광 · 고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 069-05-138135-001 ▶농협 : 703-01-341142 ▶예금주 : 매일신문사

모 집

모집 기타

약사 구함 (최고우대) 010-4129-8000

홀더(주주) 모집 블록체인 Healium 재단설립 한국, 인도 시장 진출회사 ANTZ 내 유전자 LAB 180억 정부지원 010-3925-4411 주식회사 힐랜드

배 달 직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 논공·옥포읍 면 소재지, 남여노소 정년, 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 · 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녀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 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부 동 산

대지/임야/공장

※신서혁신 공장 매매 500/1000(당600만) IC 3분 대로변, 신축공장. 동구 율암로 010-4879-9389

창녕 촌집 급매 919㎡ 몽땅 1억1천만원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곡역부동산 설태우

비산동 땅 1,136㎡(344) 10m도로 21억

이현 동 준공업지역 462㎡(140) 12억5천 정비공장 가능, 공장·창고 신축자리 010-3225-1189 No. 27170-2018-00043 서구 뉴삼강부동산 김정현

상 가

일 반 상 가

포항북구일반상업 바다근접 대160㎡ 건115㎡ 2층 8x8m 매2억 (시세반. 재개발) 010-5523-3641

임대 석적읍 중리(구미공단접) 코너 1층 127.93㎡ 3,4,5층 각589㎡ 의원(많은 혜택), 식당, 골프 사무실 1층 현. 1,2층 다이소, 병원, 약국 성업중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모 텔

모텔매매 15억 인수 대1110㎡ 객49 (융·보별) 月매 9천만원 이상/ 매매 6억인수 대340㎡ 객30 月매4500(단독위치) 053) 521-4949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농부동산 김영기

※병원 상가 신축 부지 유동인구바글바글(현 모텔 : 월2000만)대지450 당2500만 전속중개물건 (사전내사 예약필) 역세권 521-0418 No. 271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기타부동산

상인동 커피숍 264㎡ (80) 보2천 월100/골프장 매매 타석9개 룸2개 보5천 월330 가격절충 010-9294-9006

대구 최고 스크린 골프장 매매 역세권 위치 최고 스타벅스 신축매매 627-5002 No. 가17-4749 달서구 청안공인중개사 사무소 하성운

부동산교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8825-3413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2101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진현주 (1990.10.30.생)
사 망 일 : 2022.11.1.
최후주소 :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10길 23, 206호 (성당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21.

청 구 인 : 양재경
주 소 :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10길 23, 206호 (성당동)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2097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하성호 (1958.11.6생)
사 망 일 : 2022.9.23.
최후주소 : 대구 달서구 감삼남2안길 65, 501호 (감삼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21.

청 구 인 : 김옥남
주 소 : 대구 달서구 감삼남2안길 65, 501호 (감삼동)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253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피상속인 : 망 권정혁 (1960.4.10.생)
사 망 일 : 2022.9.4.
최후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24번길 32 (용덕리)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21.

청 구 인 : (상속한정승인) 권우택
(상속포기) 권경찬, 최옥이
주 소 : (권우택)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65, 102동 2304호(장성동, 삼도뷰엔빌아파트)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2153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박준우 (1963.1.10.생)
사 망 일 : 2022.10.28.
최후주소 : 대구 동구 효서로 78-2 (효목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21.

청 구 인 : (상속한정승인) 박재찬
(상속포기) 조경심, 박철현
주 소 : (박재찬) 대구 동구 효서로 78-2 (효목동)

농구·배구도 노 마스크, 먹으면서 본다

실내 스포츠 응원석 활기 전망

30일부터 야외처럼 관람 가능
관중 수 이전 수준 회복 기대
"지자체 협의 거쳐 지침 확정"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구, 농구 등 겨울철 실내 스포츠 종목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유롭고 활기찬 응원 문화가 실내 경기장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고 나서부터 야구, 축구팬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현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내 스포츠인 배구와 농구는 마스크가 주는 답답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프로농구는 불편한 마스크가 사라지면 현장의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고, 나아가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관계자는 "아무래도 응원의 크기가 가장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응원 소리가 더 커지고,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흥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음식물 섭취 등에도 불편함이 따르는데,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후 구체적인 운영 지침에 대해선 "한국농구연맹(KBL)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프로배구 역시 실내마스크 해제를 계기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한 시즌 평균 50만명을 상회하던 V리그 총관중 수는 무관중 지침과 리그 중단 등과 맞물려 2020-2021시즌 2만8천142명으로 곤두박질쳤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접어든 2021-2022시즌에도 23만9천975명에 그쳤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실내마스크가 해제된 만큼 관중 수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 프로축구 알나스르-알힐랄 연합 올스타팀과 파리 생제르맹(PSG)간 친선전에서 알나스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와 PSG 리오넬 메시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우디 연합-PSG 친선 경기

메시 선제골에 팀 승리까지 챙겨
호날두 멀티골 성공 후 세리머니
국대출신 장현수도 헤딩골 득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메호대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졌다. 오랜 시간 세계 축구를 양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는 이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을 올리며 축구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사우디 프로축구 알나스르-알힐랄 연합 올스타팀은 20일(한국시간) 리오넬 메시가 이끈 파리 생제르맹과의 친선 경기에서 4대 5로 졌다. 이 경기는 호날두의 중동 데뷔전이자 사실상 메시와의 마지막 대결로 예상되는 '메호대전'이었다.

먼저 골맛을 본 건 메시였다. 전반 3분 메시는 후방에서 올라온 패스를 받아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호날두도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호날두는 34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한 뒤 6만8천여명의 관중 앞에서 전매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환호를 끌어냈다.

이어 43분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고,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왼발로 차 넣었다.

난타전 끝에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가 결정된 뒤, 호날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장의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세리머니 장면,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히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온 가운데 메시와 어깨동무를 한 채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호날두의 선택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경기장으로 돌아와 골을 넣어 기쁘다. 옛 친구들을 만나 반가웠다"고 썼다.

메시도 인스타그램에 호날두와 가볍게 포옹하는 영상을 올리며 반가움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세기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두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은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0년 12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유벤투스(이탈리아)와 바르셀로나(스페인)의 맞대결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는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호날두가 2골을 몰아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두 선수는 지난해 1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직전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의 광고에 함께 출연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우디 연합팀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알힐랄)가 득점포를 올려 국내 축구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현수는 56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터트렸다.

신중언 기자

김민선 동계 유니버시아드 3관왕

〈스피드 스케이팅〉

500m·혼성계주서 2金 추가 획득
32명 선수들 중 38초대 유일 기록

역주하는 김민선. 연합뉴스

제31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빙속여제' 김민선(고려대)이 20일 여자 500m와 혼성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선은 이날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 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8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어 안현준(대림대)과 출전한 혼성계주에서 3분10초84로 우승했다.

그는 지난 16일 여자 1천m에서 우승한 데 이어 이날 두 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 김민선에게 대학 무대는 너무 좁았다.

자신의 주 종목 여자 500m에 출전한 김민선은 15조 인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첫 100m 구간을 전체 최고 기록인 10초 60에 주파했다.

이날 기록은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36초97)과 비교하면 크게 뒤지지만, 공기저항이 큰 야외 링크에서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성적이다.

2위 구마가이 모에(일본·39초41)와의 격차도 0.88초였다. 0.01초차로 승부가 갈리는 빙속 최단 거리 종목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다.

이날 뛴 32명의 선수 중 38초대를 끊은 선수는 김민선이 유일하다.

김민선의 금빛 레이스는 계속됐다. 이어 열린 혼성계주에서 일본(3분12초03)을 2초 차 이상으로 따돌리며 우승했다.

같은 날 '쇼트트랙 여왕' 최민정(연세대)도 주종목에서 우승하며 시동을 걸었다.

최민정은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 센터 1932링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천500m 결승에서 2분40초301를 기록했다. 결승선을 5바퀴 남겨두고 1위로 치고 나선 뒤 김건희(단국대), 서휘민(고려대)과 금, 은, 동메달을 휩쓸었다.

신중언 기자

3년 만의 NBA…시카고, 디트로이트 격파

파리서 경기…126-108로 완승

시카고 불스가 3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경기에서 승전가를 불렀다.

시카고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아코르 아레나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 치른 2022-2023 NBA 정규리그 경기에서 126-108로 승리했다.

NBA 경기가 파리에서 열린 것은 2020년 1월 25일 밀워키 벅스-샬럿 호니츠(밀워키 116-103 승) 간에 사상 처음 정규리그 경기를 치른 이후 두 번째다.

유럽에서 NBA 정규시즌 경기가 열린 것도 2020년 1월 파리 경기 이후 3년 만이다.

친선경기 등을 포함하면 프랑스에서 NBA 경기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었던 1991년 이래 이번이 12번째다.

NBA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꾸준히 미국과 캐나다 밖에서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 경기를 치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한동안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 시즌에는 지난해 12월 18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정규시즌 경기를 치러 마이애미가 111-101로 승리한 바 있다.

1997년 파리에서 두 번의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던 시카고는 이날 경기가 프랑스에서 가진 첫 번째 NBA 정규리그 경기였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광고문의 및 접수 ➔ T.053)656-4448 / F.053)656-1118

법인부동산

동 구

동행부동산(주)(하중욱,동구744-6767)27140-2022-00073

가내공업,공장,창고
동구 준주거, 대240, 건106
큰차진입, 11억3천만, 급매
동구물건다량 053)751-2800

★칠곡 용산리★
저온창고 50″,대159″,5억 동력20k,매천시장
에서10분,2차선대로010-9387-0096

범어동 병원상가
1층,105평(전용63),대규모 아파트
조성중,개발호재 다수
매매가26억 053)755-4000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주)(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매매
최다물건보유,전화주세요 588-0097

★칠곡 동명 임야 매매
당15만 110,00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010-9973-0097

★팔공산풀라이빌
★단지 매매★
대231㎡~340㎡,건100㎡

A,가구,가전,침구류
★완벽 셋팅 풀옵션

B,수영장과 조경

C,팔공산 둘레길
갓바위,도립주차장
★편리한 대중교통

D,수익형관광객숙소
★공유숙소 플랫폼 활용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청소까지 풀셋팅

E,성수기月1천만원
수익예상,평수기月300만원수익예상

F,사업자 대출80%
매매가4억5천만원 010-9973-0097

서 구

대동부동산(안태한,서구564-8200)27170-2622-00049

스타벅스 月2000만,건380 최고상권,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
5층빌딩 대585,건1740대로접 몽땅39억(당2,200만)
급매(땅값도 안됨) 010-2509-9996

대지부동산(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모텔임대,보8억,月2500만원 객실40실,매출8500이상
모텔 12억인수,(융)대710㎡,매출5500이상
상가有 053)561-6561

모텔,10억인수(융)대680㎡ 배관까지 올리모델링,매출6천이상
카모텔 10억인수,(융)대1007㎡,룸19실
시설 및 매출양호 053)561-6561

호텔26억인수,융有,대10248㎡ 룸50,신축수준,매출년13억이상
호텔 23억인수, 융有 대1150㎡, 준신축
시설최상,매출1억 053)561-6561

모텔사우나7억인수(융有)직영중 시설양호,대270,상가240만수입
카모텔 3억인수, 융有 파계사, 대863㎡
R18실,살림가능 053)561-6561

온누리부동산(양현석,서구201일-공시공공)27170-2020-00012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연수익5.3%메디컬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프랜차이즈 코너
상가 국책사업 특급 개발호재 40억/1630만, 대725㎡
투자 수익 한방에 010-8896-4599

개발호재초대단지앞
특급상가 일반상업,대288㎡ 초대박 투자용
몽땅13억9천 010-8896-4599

달구벌대로 상가 부지
초급매 1653㎡(500) 3300㎡(1000)초역세권
시청호재,투자굿 010-3851-5504

달구벌대로 더블역세권 대1,770㎡
305억 융자無,공실無,전체 프랜차이즈 건물(병원, 웨딩 건축강추)전속중개 010-4501-3935

달구벌대로카페상가
프랜차이즈入 월7500出 대1750㎡
당5800만,전속중개010-9760-5069

(주)대진부동산(이승열,서구566-6400)27170-2020-00017

풀빌라 다용도부지
전35,000㎡,위치조망확실,당25만,고령 온천수有,캠핑장,파크골프,전원주택 유원지,넓은 하천접 053)556-3600

"급매" 대형 상가
대1010㎡,초역세권,위치 상권 확실 총97억,세융안40억,보17억,月2760出 급해서헐값에처분 053)556-3600

(주)삼성부동산(조정현,서구568-8989)가-13-1978

月1800지하철출구접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月1억2천,전층약국
병원 대667㎡,건3734㎡,99억 인수,전층 약국병원입주 7만세대 최요지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1,650㎡, 건6,877㎡, 당5,000만 100억인수,약국+병원빌딩최고자리 010-6547-4488

月1500약국병원빌딩
대285㎡,건969㎡,25억인수 달구벌 대로접,지하철 출입구접 010-6547-4488

月3100전층약국병원
대1,040㎡, 건2,636㎡, 27억인수 전층 약국 병원입주,사거리코너 최요지 010-6547-4488

月4700전층병원빌딩
42억 인수, 대925㎡,건3800㎡ 전층 병원 입주
대로접 최요지 010-6547-4488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우병선,수성741-0070)27260-2017-00216

급매범어청구하이츠
★222㎡,경동초,명문중·고 인근
★로얄층,전망최고,파격적인가격
053)741-0070

6면 계속

하이원 SKI 강원랜드
정기운행
리프트·스키·보드랜탈·강습·콘도 교통(리무진 일반)인터넷예약
신동아관광
검색창 신동아관광▼ 검색
T.(053)572-400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구지뽕열매, 사과대추 출하 전 주문받습니다.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제청 허가
● 구궁 · 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독도 찬가"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상동 152-60 극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中企·소상공인·농업인 ‘디지털 전환’ 지원…정보 격차 해소”

출향 경제인을 만나다 〈14〉 이영상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회장

이영상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KASDI) 회장(데이터스트림즈 대표이사)은 한국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특별한 존재다. 국내 빅데이터 분야가 걸음마 단계일 때 개척가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솔루션과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명성이 높은 데이터스트림즈를 키워냈고 10년 넘게 업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 그가 KASDI 회장으로 새 도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글로벌 강자들이 넘치는데 국경이 없다는 의미다”라며 “산업 간에 장벽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한 회사가 자신의 주력 산업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IT이므로 IT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IT주도의 큰 흐름을 보고 일관되게 노력하면 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영상 KASDI 회장은 “디지털 혁명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객원기자

국내 최고 IT전문 기업 연합
필요한 기술·솔루션 등 제공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추진

20년 이상 데이터 업체 일궈
빅데이터·거버넌스 분야 1위
다음달 3일 출범식·창립총회

-KASDI에 대해 소개해 달라.

▶독자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최고 분야별 IT전문 기업들이 연합해 설립한 단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축·어업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오는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창립총회를 할 예정이다.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대기업 대비 중기 주요 업종별 디지털 활용 분석을 보자. 대기업(69%)에 견줘 중기(제조업 7.6%, 도소매업 14.0%, 기타서비스업5.8%)는 차별이 심하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대기업 대비 중기의 디지털ABCD(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적용현황 분석에서도 차이가 69.0% 대 9.5%로 심각한데, 우리 협회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첫 발을 떼게 됐다.

-활동 계획은?

▶먼저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응용 분야(유통·커머스, 스마트미디어, 의료·헬스, 로봇·제조, 스마트에너지 분야 등)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에게는 필요한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해 창업을 돕고자 한다. 또 여러 단체들과도 협업을 확대해 디지털전환 및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데, 지향점은?

▶그동안 협회가 준비해온 중소상공인 대상의 협동조합 생태계 플랫폼,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자체 공공서비스 플랫폼, 이모빌리티 기반의 지역산업육성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경북도, 충북도, 전북 고창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자연스럽게 협회와의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관심이 커졌고, 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에 중소상공인 대상의 협동조합 생태계 플랫폼을 소개했다. 국내 IT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물론 과기정통부, 행안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등 기관과 유관단체들과 협업으로 정책 제안 등을 활발하게 할 생각이다. 그래야 디지털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내 중기·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단기적 서비스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회장은 “시스템 플랫폼화 클라우드 시대에서 플랫폼 확장으로 국내 서비스 기업들의 생존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영역을 넓혀갈 때 내부적으로 국내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달리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된 중기나 소상공인을 KASDI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스타트업도 대상이다. 이 회장의 역량은 그가 대표로 있는 데이터스트림즈에서 증명됐다.

-회장사인 데이터스트림즈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개념이 확산되기 전부터 데이터 중심 회사로 시작했다. 데이터 중심과 대비 되는 것이 응용 서비스 중심이다. 서비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면 데이터가 발생한다. 서비스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데이터는 바뀌면 안 된다. 서비스를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변하면 데이터도 변해서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어렵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합한 플랫폼 발전시켜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회사라고 자부한다.

-데이터스트림즈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초기에는 기존 DBMS중심의 데이터처리 방식보다 수 배~수십 배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이제 속도만이 정답이 아니고 정확성이 중요하다. 현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빅데이터와 데이터거버넌스 분야 1위다. 두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데이터스트림즈 말고는 없다.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 진입 시 우리와 경쟁하고, 국내 회사들과는 경쟁에서 수월하다. 모든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클라우드 시대가 될 때 플랫폼비지니스화 할 때 유리한 회사가 됐다. 회사 가치가 커지는 단계다.

-새해 계획은?

▶자본시장에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상장하려다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연기했다. 올해 최적의 타이밍을 찾을 것이다. IPO(기업공개)라는 것은 자금이 들어와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경쟁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IPO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투자를 끌어드린다면 더욱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세계 100분의 1도 안 된다. 글로벌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플랫폼화에 성공하고 글로벌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면 산술적으로 1천 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IT 분야를 중심으로 말하겠다. 너무 시류만 쫓지 말고 자기 실력을 키워서 큰 흐름을 보면 좋겠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이영상 회장은

데이터 산업 선두주자 국내 넘어 세계 도전장

20년 동안 데이터 분야 사업을 해온 전문가이자 선구자다. 데이터란 분야는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낯설지만 이 대표의 눈에는 유독 쏙 들어왔고,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데이터스트림스는 2000년대초 데이터베이스로 성능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대용량 데이터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국내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에 이른다. 2010년대 초 빅데이터시장이 열리면서 기존의 대용량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2012년 빅데이터 플랫폼 영역에 도전했고, 전통적인 데이터 통합시장에 이어 빅데이터플랫폼 시장에서도 기술적으로 국내 선두 위치에 올랐다.

향후의 비즈니스는 데이터플랫폼을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기술을 통합하여 데이터 활용 전체 단계에서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융합하여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관리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솔루션과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 대상(2021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ICT 이노베이션 특별상(2020년) 등 수상 이력에 빛난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까지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현 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을 지냈다. 경북도 데이터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향에 봉사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동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불경기로 기업들이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 올해는 30%대 성장을 기대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꿈이다.

일반부동산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창고,공장★ 대255㎡ 건83㎡
4억2천 층고6m, 최신축 검단동 도로변
준공22년11월 010-7437-5535

▣한백공인중개사(김성현,북구)가15-2624
★창고,공장★ 대145 건45
16억9000 농산물시장인근 칠곡중앙대로변
010-8588-7112

한백공인(조재봉,김천혁신도시)가-18-1197
은행 단층 통상가
月900出 상업지역, 대구북구 신도시, 대888㎡
건600㎡, 매35억 010-6833-5433
이케아입점사거리 코너상가땅 매20억 대구안심지구
대530㎡, 4면도로접010-6833-5433
브랜드입점1층상가 보8천, 月320出 35M 도접
급원가이하 태전동 대지권216㎡
건120㎡, 매11억5천010-6833-5433

무인텔+호텔부지 김천구미 KTX역 독점 숙박비 9만
상업지역, 대2,685㎡, 건2,357㎡
매115억 010-6833-5433
대형 스크린골프 신규 주차 150대
대출80% 초급매, 전용920㎡ 전용테라스有
김천혁신 KTX 역세권, 1.3만세대
매25억(임대가능) 010-6833-5433
KTX 초역세권 땅 상업지역,주복가능
급매물땅값만 대1973㎡ 건2080㎡
김천혁신12개공공기관6,000명상주
1.3만세대, 매70억 010-6833-5433

달 서 구

▣LG부동산(박종수,달서)27290-2022-00098
★통상가+모텔★
대1170㎡, 대가야읍, 귀한물건
투자, 직영하실분, 3.3㎡ 당650만
초급매물 053)643-8988
※커피전문점※
1.2층복층, 230㎡(70), 보3천
月300, 권시4500, 7호광장 최요지
황금상권 010-9995-2299

남 구

▣부자공인(최원정,남구)27200-2022-00002
※호텔 급매
20억인수 대1,056㎡ 룸35
月1억出, 장부공개 053)263-7101
※모텔 급매 모텔물건 다량보유
대지772㎡, 룸30, 브랜드올리모델링
月6000出 융+10억인수 053)263-7101
※펜션부지 남해
※해변 끼고 30,265㎡ 매17억
053)263-7101
땅! 경산 갑제
땅+농막 자연녹지 1114㎡(337)
당100만 053)263-7101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평화시장대로변
상가 826㎡(250)
당2,300만, 급매 053)942-4080

▣금상부동산(홍세호,동구)27140-2018-00149
모텔 동촌유원지
최고위치 2,376㎡(719)
1800만원/3.3㎡ 053)984-3450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급,月 9600/120억(대출110안고) 감정가이하매매, 대1500㎡
메디칼병원,대형프랜차이즈,커피점,대규모아파트상권,수성구대형상권,향후가치급상승,투자가치010-3701-0772
급,초대형 사우나, 46억 헬스, 휘트니스
대지,감정가75억,평일700명대~주말1300명대,물세 거의없슴,투자가치좋음,주변독점 010-3701-0772
급매,月1010 29억(협의)
주차장 건물, 대지1,350㎡, 사무실 식당, 세차장, 대형건물 고정주차장 장기투자로최선 010-3701-0772

▣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범어동대로상가
매3억5천, 보2천, 융2억
1억3천인수, 월150만出
25%DC, 초급매 010-3509-4725

▣황금대구공인(김창희,수성)가-16-1343
★임대★ 대1,037㎡(314) 건1층459㎡(139)
2층251㎡(76), 스크린골프, 학원
다용도, 권.시無, 보1억5천, 月700
(1.2층별도임대可) 053)763-1770

황금부경부동산(장지혜,수성)27260-2021-00122
月1100+단층약국
15억인수 융자無, 57㎡ 역세권
053)762-6100

스타벅스초급매
月2300 DT 코너 상업지역 대1100㎡, 건560㎡
30억인수 급급 010-5683-6100

동남부동산(沈宗燮,수성761-7501)가-16-1501
팔공산 땅넓은주택
대2547㎡, 건237㎡
당180만 일반음식점 용도 053)761-7501
범어동아파트정문앞
상가주택 대360㎡, 건387㎡ 신축또는리모델링
몽땅65억 053)761-7501
月1500 병원약국,역출구대로접 대445㎡대단지앞매43억
月700 수성구Ⓐ㉠Ⓣ대단지입구 유명체인점,공실無,E/V
대85″, 매22.5억 010-6630-8648
月360出, 수성구
상가주택 신축역세권★이자 내고月200만수입
대185㎡, 자부담3억인수 762-6688
1실 1카 모텔 매매
대3,400㎡, 룸28, 매출확실
방문상담요, 月1,700수입
매매38억 053)762-6688

大邱동남부동산(정희수,수성구)27260-2018-00131
무인모텔급매8억5천
김천 어모면 계획관리, 대2,349㎡
건658㎡, 방17, 1실1주차, 건강상
직접운영대박 053)761-0999

수성동남공인(박정민,수성구)27260-2018-00132
침산동대단지앞상가
現유명프랜차이즈 학원계약, 5년계약
(27년11월까지), 보3천/月160만出
매3억9900만 010-8574-0834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범어동 최고위치
나대지 땅(950”)
010-2411-9080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임대 대366, 건120 사무실17, 전70k
보2000, 月120, 매매가능
텃밭매매 50,78,134,315,415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테크노 특급공장
매매 대25,935㎡, 건14,052㎡
고15M, HOIST12대(30T등)
당268만원 010-4504-6532

공장매매/국가산단
대16000㎡, 건7300㎡
달성2차 대3309㎡, 건2458㎡
010-4504-6532
★테크노폴리스★
★지원시설 內 상가 임대, 매매★
대지1950㎡(590), 건물948㎡(287)
30평10칸 010-6292-0203

경 산 시

물류 창고 혁신도시 2000″
공장 창고 와촌IC 대700″ 9,000″, 당88만
010-9468-5022/ 010-3502-0322

구 미 시

▣보리공인(윤영란,구미)47190-2020-00106
신축급매 대360.3㎡(109) 건657.86㎡(199)
15M x 8M코너, 17가구(원5+미투11+투1), 월세550만원
인수가7000만원 010-6522-9200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다산공장급매 준주거 대357
건126, 12M계도접, 천고10M, 호10톤
(대출80%), 월드메르디앙 2차예정지
정문입구, 미래투자 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급급매 고령IC
대470, 건150, 사30, 전기90kw
호이스트 5t x 1, 몽땅5억2천
054)956-9080
동고령일반산업 단지매매
공장용지, 대12,049㎡(3645) 최상위치
★공장·창고, 개진면 개포리★
대2800, 건1027 010-6292-0203

성 주 군

★참외재배답매매
성주, 선남면 명포리1004
2,466㎡(746), 2025.9.25임대 안고
당25만, 주인직 010-9355-2386

감도높은 광고효과!
바로 매일신문 광고입니다.
每日부동산 안내
TEL.053)656-4448
FAX.053)656-1118

FOUR-IN-ONE

건강 기능성 수제화의 名家 – 2022 '닥터프렌 / DOCTOR FREN'

정장화, 운동화, 등산화, 골프화, 조깅화,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까지

한 켤레면 충분하다

FOR EVERY ACTIVITY FOUR - IN - ONE ALMIGHTY SHOES

- 일상의 모든 활동을 한 켤레로 커버하는 편리성
- 발의 피로를 흡수해 많이 걸어도 뛰어도 편한 신발
- 악취는 원천차단, 몸을 바로 잡아주는 자세교정 까지
- 소프트한 천연소가죽에 300g대의 초경량!
-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는 글로벌한 디자인
- 한국인의 발모양에 잘 맞는 인체공학적 설계
- 용천혈을 자극해주는 용수철 건강지압봉 내장 깔창

포인원 만능슈즈

100% **국내생산**,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특허 3종의 건강깔창, 강력한 **미끄럼**방지 **엠보싱 창**, 안락한 **착화감**

특이한 발 형태도 잘 맞는다 / 여름철에도 땀이 차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다이얼 방식으로 신고 벗기 편하다 / 부드러운 외피로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다

세계적인 특허 "오쏠라이트" 깔창
오쏠라이트 항균깔창은 여름철에도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최고급 천연소가죽 외피
더운 여름철에도 땀이 차지 않는 완벽한 통풍성

3종의 특허 깔창
악취차단, 건강지압봉, 자세교정

끈없어 편리한 프리락
활동에 맞게 강도조절

미끄럼 방지 밑창
등산, 골프, 트레킹, 등
각종 스포츠 및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엠보싱 밑창

모델명 : DF-3
색상 : 브라운 (남녀공용)

모델명 : DF-1
색상 : 블랙 (남녀공용)

남성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여성 사이즈 230 / 235 / 240 / 245 / 250 / 255mm

~~기존가 : 219,000원~~
특별할인가 : 99,000원
(2켤레 구입시 10,000원 할인)

뛰어도 걸어도 산에 올라도 험한 작업을 해도 만능슈즈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신발의 개념을 바꾸는 뉴올인원 만능슈즈는 정장신사화와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진가를 발휘한다. 기본 등산화나 트래킹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방습, 방한, 방열, 방취) 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고급 등산화, 트래킹화에 사용되는 고급소재만제작하였다. 뉴올인원 건강슈즈는 발의 형태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며 어떤 일을 하던 최적의 보행조건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만능슈즈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유용한 제품이다. 수 십년 축척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족도 닥터프랜의 2021 신제품 뉴올인원 만능슈즈가 출시되었다. 최상의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마치 양말을 신는 듯 가볍고 부드러움이 압권이다.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에 기능성을 부가하여 기존 신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한다. 강렬하면서 부드러운 밑창은 완벽한 미끄럼 방지기능으로 등산화, 골프화, 각종 스포츠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래 걸어도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특수 고무재질로 만들어 졌다. 또한 내장된 깔창은 3종의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되어 자세교정, 탈취효과가 탁월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기존의 신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착화감을 보여 처음 신는 신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많큼 부드럽다. 몇 년은 신은 신발처럼 발의 모양에 따라 발을 감싸주어 발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도 불편없이 잘 맞는다. 뉴올인원 만능슈즈는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퀄리티와 내구성이 다른 신발에 비해 우수하다. 최고의 천연소가죽은 기존 신발이 발에 잘 맞지 않은 대부분의 특이 발형태를 가진 사람에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당뇨나 발의 기형으로 인해 기성화를 신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만능슈즈는 걱정없이 신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발끈이 없고 다이얼로 조절하기 때문에 벗고 신기가 편하다. 강철처럼 강한 프리락은(Free lock)은 등산, 낚시, 험한작업시에도 줄이 풀리질 않아 더욱 안전하며용도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천연소가죽도 등급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은 가죽의 표피만을 사용합니다. 표피를 벗겨낸 소가죽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 가죽을 일명 코팅(액션)가죽이라 합니다. 이런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의 통풍구를 막아 땀이 차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죽을 사용한 신발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해 천연소가죽이라고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 올인원 만능슈즈는 최상의 천연소가죽으로 가죽의 표피를 사용하여 통풍성과 신발의 부드러움이 액션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 제품을 만나보세요

100% 국내산, 6개월 무상 A/S 보장
불만족시 100% 반품, 환불보장!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구매할수 있는 홈쇼핑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 일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모던산업(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1981년에 지어진 주택을 개조한 '1981카페'. 대문 옆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모과나무와 돌계단이 정겹게 반겨주고 있다.

옛 친구 집에 온 듯, 고소한 추억의 맛

카페 민지(MZ)

대구 중구 남산동 '1981카페'

달달한 크림 아래 부드러운 라테가 잘 어우러진 '밀크슈페너'. 어린 시절 많이 먹던 냉율무. 고소한 곡물의 맛과 향이 옛 추억을 자극한다. '1981카페' 외관.(왼쪽부터)

삼남매 '경영·커피·베이킹' 분업
인쇄골목 40년 된 주택 부분 개조
벽돌·라디에이터도 빛바랜 소품

비엔나커피서 착안 아인슈페너
냉율무·구움과자 옛 향수 자극
동네 상권과 상생 노력도 활발

집이라는 공간은 개개인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에게는 잠자는 곳,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휴식처,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대상. 그중에도 집은 외부와 단절한 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 2020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은 '집에 있을 때'라고 답했다. 이처럼 휴식의 공간을 의미하는 집을 매개체로 손님들에게 아늑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카페가 있다.

◆어릴 적 추억이 그대로

40년 된 주택을 개조한 '1981카페'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가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 모습을 한 이곳은 겉보기엔 영락없는 일반 가정집이다.

으리으리한 갈색 대문 옆으로 들어가면 앞마당에 심긴 커다란 모과나무가 반겨준다. 주택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돌계단도 정겹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잘 보존된 내부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목재로 둘러싸인 인테리어가 과거 양옥집을 떠오르게 한다. 벽에 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조명들도 눈에 띈다. 카페가 아니라 마치 할아버지·할머니 댁을 방문한 느낌이다.

8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는 총 7개의 방이 있다. 원래 방으로 쓰였던 공간은 물론이고 주방·욕실·다용도실로 쓰이던 공간들도 개조해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집 특성상 모든 공간이 방으로 분리돼 있어 손님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카페 구석구석 놓인 소품들을 보는 재미도 크다. 낡은 목재 테이블, 중고 에어컨, 자개상 등 레트로한 소품들이 집이라는 콘셉트를 한껏 살려준다. 당시 집주인이 사용하던 빛바랜 인터폰과 스위치도 그대로 남아있다.

◆집을 위해 모인 삼남매

1981카페는 삼남매가 함께 운영한다. 실제로는 첫째 설민애(38)·셋째 설재홍(28) 씨는 친남매, 둘째 설윤영(31) 씨는 사촌 관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탓에 모두 친남매나 다름없단다.

이들 셋은 각자 다른 일을 해오다 카페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게 됐다. 설민애 씨는 카페 전반적인 운영을, 설윤영 씨는 커피를, 설재홍 씨는 베이킹을 담당하고 있다.

삼남매는 남산동을 정해놓고 동네를 둘러보던 중 예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이 집에 매료됐다. 집이 비워진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던 주인을 설득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운명처럼 만난 이 집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건물이 지어진 해인 1981년을 따서 카페 이름도 1981카페로 정했다.

건물 리모델링은 삼남매를 포함한 가족들이 3개월간 직접 진행했다. 집의 원형을 유지하며 깔끔하게 보완만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수리 과정에서 나온 벽돌·라디에이터 등 부자재들도 버리지 않고 인테리어에 적극 활용했다.

설민애 대표는 "이곳에 찾아오면 외부의 생각들과 동떨어져 힐링할 수 있었으면 했다"며 "공간을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손님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은 안진주(30)씨는 "일반 가정집에 놀러 온 것처럼 편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어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전 연령대가 좋아하는 메뉴

메뉴들도 집이라는 공간과 최대한 어울리게 구성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집인 만큼 전 연령대가 좋아할 수 있는 메뉴로 하자는 것. 너무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해왔다.

대표 메뉴는 블랙·밀크·모카·초코 슈페너 등 달달한 크림이 듬뿍 올라간 아인슈페너 4종이다. 1980년대 대학가 다방에서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였던 비엔나커피. 진한 커피에 생크림을 얹어 부드럽고 달콤하던 그 당시 비엔나커피를 요즘 스타일의 아인슈페너 형태로 가져왔다.

어린 시절 많이 먹던 냉율무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고소한 곡물의 맛과 향이 옛 추억을 자극한다.

음료 못지않게 디저트에도 진심이다. 카운터 뒤에 위치한 베이킹 룸에서 케이크·구움과자·샌드위치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매일 직접 만들어 낸다. 대학에서 베이킹을 전공한 막내 설재홍 씨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다.

SNS를 보고 방문한 김소연(27) 씨는 "카페 이름에 걸맞게 옛날 느낌이 나는 메뉴들이 많아서 인상적이었다"며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했다.

◆힐링할 수 있는 동네카페

1981카페는 작년부터 주변 상권들과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셀프 사진관, 도자기 공방 등 남산동에 위치한 동네 상점들과 연계해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체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설 대표는 "손님들이 이 골목에 자주 오게 하려면 우리 하나로는 힘들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상점들과 컬래버 해보니 재미있고 동네 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도 음식점 등 다양한 곳과 연계한 이벤트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남매는 손님들이 할아버지·할머니 댁,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 오듯 편하게 카페에 찾아와 쉬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설 대표는 "무엇보다 손님들이 서슴없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 골목에 잘 스며들어 동네카페로 오래 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영경 기자 hope@imaeil.com

생산지 직송 파격할인 이벤트

맛이 깊은 100% 국내산 재첩 진국

하동 ·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선한 국내산 활재첩만을 엄선하였습니다.

3대째 내려온 국내산 원조 하동 재첩 진국

섬진강자연재첩수산 SEOMJINGANG NATURE FOOD · 국내산재첩100% · 경상남도추천상품 KYONG-NAM PROVINCIAL · 농협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자연산 재첩진국

▶ 아침 저녁 국거리가 걱정이신 분
▶ 입 맛이 없으신 분
▶ 해장이 필요하신 분
▶ 속이 불편하신 분
▶ 개운한 국물이 생각나시는 분

600g
기타 수산물가공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1봉지 600g 으로 두 분이서 드실 수 있습니다.)

1세트 (10봉, 20인분)
69,800원 (6kg)

11,600원 할인
2세트 (20봉, 40인분)
128,000원 (12kg)

제품구입상담전화 (공휴일,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약도라지 속 사포닌만 24가지

사포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 풍부하게 함유

강원도 약도라지 진액고

즙, 청
모두 아닙니다.
아무것도 넣지않고
100%
강원도 약도라지
초 고농축
100% 진액

1세트 ~~198,000원~~ -> 138,100원 할인
총 4병 59,900원
무이자 3개월 / 한달 19,966원 (100g x 4병)

2세트 추가 20,000원 할인
총 8병 99,800원
무이자 3개월 / 한달 33,266원 (100g x 8병)

숨쉬기가 힘들어요?
"강원도 약도라지 진액고 드세요"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고령화와 비흡연에 노출된 아이와 여성분!
* 황사 , 미세먼지, 배기가스에 시달리는 분
* 초미세 분진이 많은 학교 급식실, 또는 식당
*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염려되는 주부!
* 선생님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 공기가 탁한 실내, 공장, 근무자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정내 상비용으로 추천합니다.

SEN 서울경제TV 홈쇼핑 방영중!

제품구입상담전화 (공휴일,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NH 지리산마천농협협동조합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NH농협손해보험

100%국내산흑염소와 국내산 고급재료 19종을 함께 48시간 동안 추출하여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국내산 흑염소
지리산마천농협
흑염소 珍生 진생

원재료 및 함량
흑염소 추출물 81% [흑염소추출액(고형분 2% 흑염소:국내산)], 식물혼합추출액[고형분3%, 두충(국내산)10%,오갈피나무(국내산)10%,뽕나무잎(국내산)8%,뽕나무어린가지(국내산),칡뿌리(국내산),아로니아원액(국내산),솔잎(국내산),하수오덩이뿌리(국내산),약쑥잎(국내산),익모초지상부(국내산),건조감귤껍질(국내산),알리움후커리(국내산),참당귀뿌리(국내산),천궁뿌리줄기(국내산),생강(국내산),대추(국내산),작약뿌리(국내산),건지황(국내산),사양벌꿀(국내산)

HACCP

전국 무료배송
사계절 보양식으론 역시 흑염소!

흑염소의 영양분과
좋은 재료로 정성들여 만든 "흑염소 진생"

2개월분 69,800원
4개월분 할인가 128,000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좋은 국내산 재료를 배합해 48시간 이상 장시간 추출한 진액으로 맛과 향이 진하고 담백합니다. 야생의 힘과 땅 속 기운이 더해져 흑염소의 명가(名家) 지리산 마천 농협의 흑염소 진생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1개월분 (1박스) : 70ml X 30포

지리산마천농협 흑염소 진생
2개월분 [2박스 (60포)] 69,800원
4개월분 [4박스 (120포)] 128,000원

고급 선물용 포장케이스
귀한 분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고급 선물용 포장케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국내산 흑염소의 육골이 통째로 들어가 청정지역의 깨끗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품으로 1일 1회 식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국내산 흑염소와 함께 좋은 재료들을 배합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진하고 담백하며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시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걸러냈고 국내산 한약재를 배합하였기 때문에 흑염소 특유의 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않고 끝 맛이 깔끔한게 특징입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에서 엄선된 재료와 튼실한 국내산 흑염소로 정성껏 진심을 다 하여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Black Goat JinSaeng
흑염소 추출액 81%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구입상담전화 (공휴일,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

발효 흑마늘의 힘 ! 느껴보세요

흑마늘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마늘.. **가정에서 만들어 먹자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은 **첨가물 없이** 오로지 **순수한 국내산 마늘**로 만들었습니다. **발효를 거치면서** 맛이 더 깊어져 **어린이부터 중,장년 어르신**들까지 편하게 드실 수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의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無향신료

1억원 제조물 책임보험

마늘 관련 언론보도

- 2002년 8월 『KBS 9시 뉴스』 우리토종 마늘 수입산 56배 효과
- 2003년 5월 『KBS 생노병사의 비밀』 마늘의 유용성 심층보도
- 2006년 8월 『KBS 뉴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웰빙으로 건강백세
- 2007년 8월 『SBS 모닝와이드』 건강 100세의 비밀 한국의 힘 마늘이 책임진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세계 10대 건강식품" 에 선정

국내산 발효 흑마늘

1세트 (300g x 4통)
파격가 : 99,800원

2세트 (300g x 8통)
파격가 : 189,800원

1통 300g
(국내산 마늘 100%)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구입상담전화 (공휴일,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겨울 이불

안녕달 지음/
창비 펴냄

아픈 마음 따뜻하게 덮어줄게

추운 겨울날 할머니집 들어서면
뜨끈한 방바닥 깔린 두꺼운 이불
그 속에 동물 친구들도 누워 쿨쿨

작가 안녕달 다운 동화적 상상력
섬세하게 묘사된 그림 흥미 더해
그 시절 그리운 어른들은 코끝 찡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유명 가수 아이유의 노래 '무릎' 가사 중 일부다. 불면증에 시달렸던 아이유가 '할머니 무릎 베개'를 베고 까무룩 잠에 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지은 곡이라고 하는데 따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가 있던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가 떠올라 노래를 듣다 그만 울컥했던 기억이 있다.

그림책 작가 안녕달의 신작 '겨울 이불'을 보고는 그때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가 단지 나이가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이 돼도 어두운 마음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린아이…아동문학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어루만져준다"

지난 17일 2023매일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렸다. 신춘문예 동화부문 심사위원이었던 임정진 작가는 시상식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어른이지만 저마다의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한명씩 지녔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겨울 이불) 분명 어른을 위한 책이다. 다 컸다고 생각한 나의 깊은 어두운 마음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그림책을 넘기다 그만 그리워서 울고 말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마 대부분 국민의 눈물버튼일거다. 안녕달 작가가 눈물버튼을 건드리고 말았다. 제목부터 제철(?)이다. 겨울 이불. 추운 겨울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의 구들장은 뜨끈하게 데워진다. 찬바람을 맞고 온 몸이 꽁꽁 아이의 몸은 금세 녹는다. 두꺼운 옷과 양말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목바람으로 방바닥에 놓인 두꺼운 이불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는데 포근한 솜이불 안에서는 귀엽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진다.

역시 안녕달이다. '수박 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판타지 같은 세계를 만들어온 작가가 이번엔 솜이불 아래 '찜질방'을 만들어냈다. 글밥이 적어도 그림이 알차다. 섬세하게 묘사된 그림을 꼼꼼히 살피면 책장은 느리게 넘겨진다.

이불 안 찜질방에는 곰과 거북이, 다람쥐가 뜨끈한 방바닥에 누워 곤히 잔다. 아이가 쪼르르 달려간 곳은 이불 찜질방 벽에 기댄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쫙 풀리는 뜨끈한 온기에 '시원하다'며 차가운 식혜 한 모금을 쭉 빨아 당기며 사우나를 즐긴다.

그림 속의 그림, 꿈 속의 꿈처럼 상상 속의 상상은 끊임없이 더해진다. 이불 찜질방 카운터에 달걀과 식혜를 사러 간 아이에게 흰곰은 달걀 바구니 위에 얹힌 천을 슬쩍 들어 올리는데 그 안엔 여름날 뛰놀던 골목길 풍경이 펼쳐진다. 달걀 골목에서 아이들은 숨바꼭질하며 놀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떤다. 식혜를 받으러 도착한 곳은 식혜 강가. 꽁꽁 언 식혜 강가에는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돌아가고 싶은 옛 그리운 그 시절의 모습이 자꾸 휘몰아친다. 달걀 골목, 식혜 강가를 지나 종착지는 할머니의 무릎이다. 무릎에 누운 아이는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 그만 잠이 든다. 안녕달 작가는 옛 그리운 정서와 조부모의 사랑, 즉 가족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림책 마지막 페이지. 아이를 데리러 온 아이의 아빠는 잠에든 아이를 업고 집으로 향하며 말한다.

'애가 몸이 참 따끈하네'

신춘문예 심사위원 임정진 작가의 말이 맞았다. 안녕달의 아동문학은 어른들의 마음 속 아이에게 어쩌면 잊고 있었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눈물이 났던 이유다. 사랑받은 아이는 따뜻하고,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그 덕분에 따뜻함을 지닌 사람으로 남아야겠다는 원동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겨울 이불은 '평생 소장 각'이다. 68쪽,1만6천원.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책 CHECK

드리밍

정성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정성하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기타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대열에 오른 유명 스타다. 한국인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동영상 1억 뷰를 돌파했으며 연주자로서는 드물게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 구독자 7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기타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동으로 입소문이 난 그는 13세 때 지상파 방송 SBS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누군가는 그가 단순 천재이거나 행운아일 거라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에 오르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도전과 갈등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거쳐온 과정들과 에피소드들, 세상을 무대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떠올랐던 단상들을 통해 꿈을 이뤄나가는 정성하의 성장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있다. 206쪽, 1만7천원. 전창훈 기자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이동환 지음/ 유원북스 펴냄

이 책은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법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봐서 2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는 어색하고 복잡한 법률용어를 읽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회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양한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는 예시로 들고 있어 법이 주는 지루함과 진부함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끔 하고 있다.

지은이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부산경찰청에서 다양한 부서를 돌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지은이는 "현장 밖에서 훈수하는 듯한 교과서나 전문 서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226쪽, 1만6천원.

전창훈 기자

암태도

송기숙 지음/창비 펴냄

전남 신안군에는 암태도라는 섬이 있다. 면적 43.09㎢의 이 섬에는 깊은 역사가 있다.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소작농민 항쟁을 벌였다. 암태도의 식민성 지주 문재철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해서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 농민운동이다.

암태도 소작농민항쟁의 이야기를 소설로 그려낸 송기숙의 장편소설 암태도가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이다. 지난 1981년 초판 출간 이후 41년 만에 송기숙의 소설이 다시 독자들과 만난다.

송기숙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억압적 일상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삶과 투쟁을 묵직하게 그려낸다.

소작쟁의는 1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오늘날과 크게 모습은 다르지 않다. 가진 자들이 민중을 착취한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암태도 개정판은 더욱 힘을 얻을지 모른다.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문학적 의미는 현대의 우리 앞에서 은은하게 빛날테다. 452쪽. 1만6천원. 배주현 기자

세헤라자드 사서의 별별책 〈53〉 그림책의 마법

초원 꿈꾸는 서커스단 코끼리처럼 살자

늘 꿈꾸는 코끼리

김지연 지음/
현북스 펴냄

상상 통해 현실의 어려움 극복
동화책 읽으며 희망 품는 훈련

과거의 일이다. 2019년 새내기 사서였던 그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서가 도서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다소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자연스럽게 아동센터로 모였고, 미리 도착해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었다.

이곳의 아이들은 다양한 학년이 같은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년에 관계없이 서로 도와주는 공동생활이 꽤나 익숙해 보였다. 그 덕분에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은 힘겹지 않게 많은 작품들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도서는 그림책부터 초등저학년 문고 도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레벨로 선정해 진행했다. 아이들은 그림책에 관심을 더 보였고, 특히 '늘 꿈꾸는 코끼리' 책을 갖고 진행하는 수업에서 유난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검은 바탕에 서커스를 하는 고깔모자를 쓴 코끼리 한 마리가 등장하는 표지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공모전에 당선된 그림책 '늘 꿈꾸는 코끼리'는 서커스단에서 공연하는 코끼리가 늘 자신이 자랐던 초원을 그리면서, 상상과 꿈꾸기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함께 책을 읽으며 우리들은 어느덧 코끼리의 꿈을 응원하게 됐고 또한,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품었다.

어느덧, 15주 동안의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지 않게 되었지만 전혀 섭섭함은 남지 않았다. 이제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해 어린이자료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내기 사서의 열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행한 프로그램 우수성 때문인지는 모르나, 아이들은 어느새 책과 친해져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새삼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늘 꿈꾸는 코끼리' 책에 고맙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덕분에 선생님인 나와 아이들이 좀 더 친해진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이수정 대현도서관 사서

상대방 경험·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질문법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앨커 비스 지음, 유동익·강재형 옮김/ ㈜동양북스 펴냄

하버드대학교 과학자들이 fMRI(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를 이용해 왜 인간이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내측 전두엽 피질과 특히 측핵과 복측피개 영역, 이 두가지 영역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 두 영역은 맛있는 음식, 성관계, 코카인 등의 쾌락에 반응한다. 이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의 것들처럼 인간에게 강한 쾌락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 내놓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즉 '질문'은 사람들간의 대화에 포문을 여는 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때?"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다.

또 좋은 '질문'은 그만큼 좋은 대답, 좋은 대화, 좋은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필연(必然)이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은이는 "좋은 질문을 하고, 말을 할 때 마다 상대방과 내가 더 똑똑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젊은 철학자, 앨커 비스의 '질문'에 관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돼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왜'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지를 다뤘다. 스스로 여태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일 것이다. 2장에서는 '질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이 소개돼있다. 일명 '소크라테스 문답식 대화'다. 3장에서는 좋은 질문의 기본 조건을 담았다.

'왜' 좋은 질문을 못하는지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을 배울 시간이다. 그래서 4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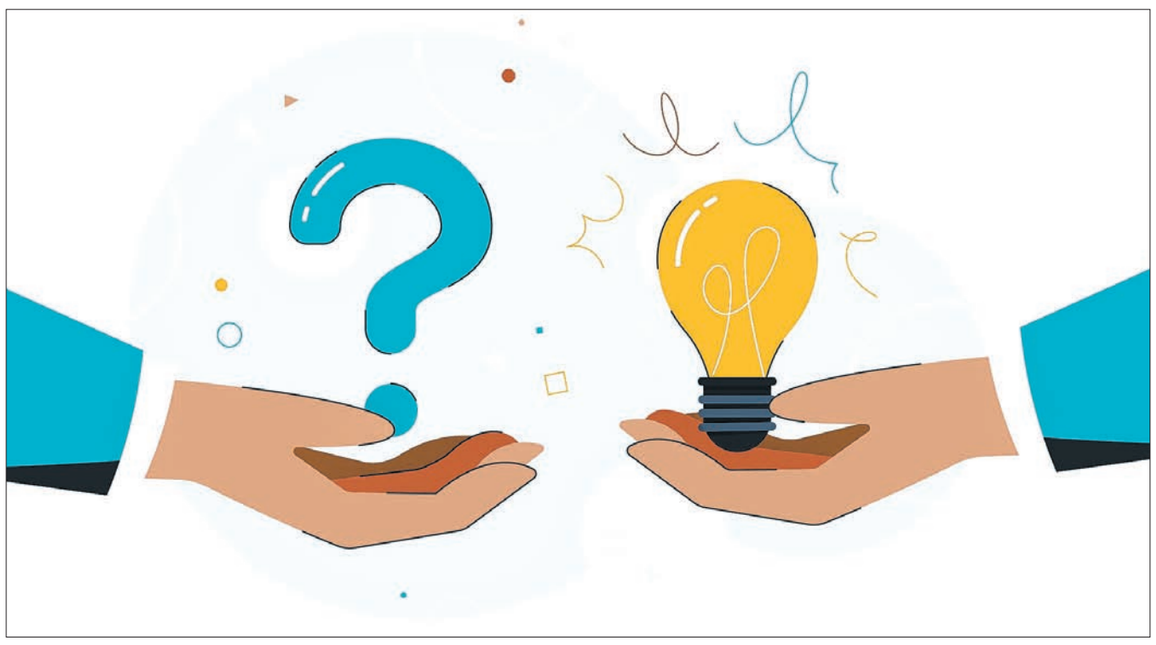
문답 통해 교감하는 방법 소개
대화 주도하고 싶다면 잘 듣고
공감보다 정곡 찌르는 질문해야

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질문의 기술'이 안내돼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질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언행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질문을 한 뒤에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떤 대화를 이어가고, 어떻게 해야 화자들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특히 지은이가 강조하는 것은 '대화의 목적'부터 바꾸라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공감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라고도 제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시중의 공감 대화법, 혹은 설득의 심리학같은 자기계발서적과는 약간 그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결의 화술, 자기계발 서적을 원하는 이들에게. 240쪽, 1만5천800원.

심현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 내놓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게티이미지뱅크

5년차 동네책방 고군분투 성장기

동네책방 분투기

박태숙·강미 지음/ 학이사 펴냄

책에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꿀법한 '동네책방'의 주인.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가득 채워 판매하고, 예쁜 그림들도 걸어놓고, 가끔 주민들을 초대해 작은 음악회를 여는 상상을 해본다. 아, 너무 행복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년 안에 절반이 망한다. 흔히들 자영업이 수익을 내려면 재료비 40%, 임대료와 공과금 30%, 인건비 30%를 잡아야한다는데, 동네책방은 재료비(책 구입비)만 70%가까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 있는 '책방카페 바이 허니'는 이러한 현실 속에 당당히 5년차 동네책방으로 자리 잡았다. 빈 땅에 건물을 세우고 동네책방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해, 역세권 없는 동네에서 역세권 부럽지 않은 '책세권'을 만들었다. '동네책방 분투기'는 책방지기인 전직 국어교사 박태숙, 소설가 강미 씨가 그 분투의 과정을 써내려간 책이다.

1부 '책세권 입문기'에서는 창고와 같았던 학교도서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생들과 독서활동을 함께하는 등 저자를 책방지기로 이끈 경험들을 담았다.

2부 '책세권 조성기'는 본격적으로 동네책방을 열기까지의 얘기다. 땅파기부터 시작된 공사와 세련되면서도 따뜻함을 추구한 내부 인테리어, 정원 설계 등 공간 조성을 위한 과정을 실었다.

3부 '책세권 성장기'에서는 따라하고 싶은 전국의 책방 순례를 시작으로 책방과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안내한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동네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일상이 담겼다.

4부 '책세권으로 이끈 사람들'에는 책방카페 바이 허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끈 사람들의 얘기다. 온라인 서점이 주류가 된 시대, 누군가는 도심에서도 망해나가는 게 동네책방이라고 코웃음 쳤다. 하지만 이곳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친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줬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응원과 현실적인 조언들을 빼놓지않고 적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다. 실패의 과정, 시행착오와 실용적인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동네책방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건강한 책방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232쪽, 1만6천500원.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최초의 블랙홀 사진 얻기까지 여정

이것이 최초의 블랙홀 사진입니다

하이노 팔케·외르크 뢰머 지음, 김용기·정경숙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얼마 전 가수 윤하의 곡 '사건의 지평선'이 역주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사건의 지평선. 낯선 단어의 조합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긴 문학적 제목인가 싶어 한참 생각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이들이 많지 않았을까. 답은 의외인 곳에서 튀어나왔다. 사건의 지평선은 시공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블랙홀과 관련된 용어다.

8년 전 SF영화 '인터스텔라'가 큰 인기를 얻었다. 화면이 큰 영화관에서 3시간 가까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자니 입이 떡 벌어졌었고, 블랙홀로 들어간 주인공 '쿠퍼'가 지구에 있는 딸과 '머피'와 소통하는 모습에 한동안 블랙홀, 우주의 신비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 궁금증을 가져봤던 블랙홀. 그 블랙홀에 관한 책이다. 사건지평선 망원경(Event Horizon Telescope, EHT) EU 대표이자 EHT 과학위원회 의장인 팔케 교수가 지난 2019년 2019년 4월 10일 블랙홀 사진을 소개했다.

책은 2019년 처음 블랙홀 사진을 공개하던 날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사진 공개를 생방송으로 지켜봤고, 몇 시간 만에 거의 40억 명이 블랙홀 사진을 보게 된다.

블랙홀 이미지를 얻기까지 지난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을 소개한다.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지구에서 출발해 달과 태양을 지나 행성들을 통과한 오늘날 우리의 우주관을 밝혀준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2부에서는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지식에 대한 여행이다. 이미 책을 읽은 추천인은 2부까지만 읽어도 몇 권의 천문학 교양서적 역할을 다 해냈다고 표현한다.

책의 백미라고 불리는 3부는 블랙홀 관측에 성공해 대중에게 발표하는 모험 과정을 소개하는데 추천인은 들어가는 순간 숨 막히게 진행되는 드라마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4부에서는 '블랙홀이 끝이나?' 등 과학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의문 몇 가지를 다룬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는 마치 영화를 보듯 저자는 블랙홀에 대한 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보다 훌륭한 교양과학서는 없어보인다. 376쪽. 2만5천원.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전국 17대 주요 학군 장·단점 분석

대한민국 명문 학군 입시지도

신진상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능 폐지론과 IB(국제바칼로레아)의 부상 등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의 교육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입시를 준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와 사교육 경쟁력이 확보된 학군지에 거주하는 것이다.

다만 학군지를 선택할 때는 내 아이의 학습 역량과 진학 목표, 그리고 가정의 경제 여건, 재테크로서의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치동 20년 경력의 입시 컨설턴트이자 재테크 전문가인 지은이는 전국 17대 주요 학군지의 장단점과 해당 학원가의 트렌드까지 면밀히 파악해 책에 실었다.

지은이가 전국의 교육특구를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얻은 생생한 정보, 주요 학교의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 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입시 1번지 대치동부터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까지 학군지 내 핵심 중·고교(총 205곳)의 학업 수준과 내신점수,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 추이 및 대학 진학률 등 수년간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학교별 장단점을 도출해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 결과 분석뿐 아니라, 학교별 진로·진학 탐색 동아리와 교육 과정 등 세부적인 특성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개편되는 입시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까지 정리해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학군지 실거주를 고려하는 독자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학군 내 아파트와 주변 입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냈다.

주요 초·중·고 및 학원가와 인접한 블루칩 아파트(단지 규모가 크고 교통, 거주환경이 좋은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월세가 가격 추이 및 재건축 사업 진행 현황 등 투자 가치까지 제공한다. 496쪽, 2만3천원.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내가 읽은 책 **몽실탁구장** (이동훈/ 학이사/ 2021)

그리운 벗과 나누고픈 이야기 시집

'몽실탁구장'은 등불 같은 시집이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 같기도 하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전조등 같기도 하다. 1부 '시인의 생가는 시일 뿐', 2부 '복福은 한 입 거리 수단일 뿐', 3부 '실망은 기대의 후속 편일 뿐'이라는 타이틀 아래 스무 편씩 소개된 총 60편의 시는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 같은 느낌도 준다. 그 알전구가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캄캄하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진다.

저자인 이동훈 시인은 수많은 예술가를 친구처럼, 이웃처럼 살가운 시선으로 소개한다. 사람과 사람, 작품과 작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것들은 그물코처럼 엮여서 생각의 고리를 파생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몽실탁구장'은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는 수다집이기도 하다. 그 말의 꼬리를 자르기란 쉽지 않다. 이 납작한 책 속에는 예술가의 삶이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근원적 슬픔과 삶의 애잔함이 물처럼 번져와 마음을 적시고, 그리움과 간절함으로 마음의 그물을 끌어당긴다.

표제작인 '몽실탁구장'에서 작가는 '몽실이를 닮은' 아주머니와 '탁구대 양쪽만 집중 공략하는 극단주의자' 아저씨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사뭇 사나워진 분위기'에 '허, 그것참만 연발'하다 '탁구장 옆 슈퍼에서', '우유로 건배'를 하는 사람들. 건배를 나눈 것이 흰 우유였는지 바나나우유나 딸기우유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시인의 말처럼 '몸 쓰며 기분 내는 일이란 사람 사이 간격도 좁히는 것'이기에 부대끼고 울고 웃으며 풀어나가는 그 삶의 풍경이 담담한 울림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시인은 그들 모습에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탁구공을 능숙하게 되받아치듯, 신산한 세상살이의 웬만한 풍파는 가볍게 받아넘기는 지혜를 발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예술가들의 봄밤, 혹은 단풍 구경이 그려지고, 오두막 혹은 선술집이 떠오르는 시집, '몽실탁구장'. 따스한 커피 한 잔, 마음을 녹이는 차 한 잔이 그리울 때, 좋은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다. 함박눈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커피값을 구하는 노숙인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사내'처럼, '남의 옷만 재단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내준 외투를 '추위에 떨고 있는 시다에게' 건네준 전태일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르네상스 다방과 인근 주점' 어느 곳에서든 오래오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시집, 우리 생의 압축 파일 같은 시집(集, ZIP)이다.

이경애 학이사독서아카데미 회원

베스트 셀러 1월 셋째 주

순위	책명	저자	출판사
1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메이븐
2	생에 감사해	김혜자	수오서재
3	원씽	게리 켈러	비즈니스북스
4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5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모모
6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	미래의창
7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심리법칙	야오야오	미디어숲
8	미스터 프레지던트	탁현민	메디치미디어
9	불편한 편의점 2	김호연	나무옆의자
10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 교보문고 제공

은밀하게 치열하게 생존하는 식물의 세계

KBS1 설 특선 '그린 플래닛' 21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이 21일(토)~24일(화) 4회에 걸쳐 연속 방송된다.

은밀하게 숨 쉬고 치열하게 생존하는 비밀스러운 식물의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본다.

▶21일(토) 오후 9시 40분 '적자생존, 수중 세계': 독특한 민물 속 식물의 세계가 있다. 빠르게 휘몰아치는 급류나 1년 중 몇 달 동안만 번식할 수 있는 습지 또는 영양소가 부족한 늪지대 등에서 식물들이 살아남는 건 엄청난 도전이다.

▶22일(일) 오후 8시 10분 '생존의 비밀, 사계절':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계절에 맞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강인하고 회복력이 뛰어나야 하며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 또한 완벽해야 한다. 전 세계 사계절이 있는 땅을 찾아 다양한 식물들이 계절에 맞춰 개발한 뛰어난 생존 전략들을 소개한다. 또한 기후변화 때문에 계절에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고민도 함께해 본다.

▶23일(월) 오후 10시 35분 '극한의 환경, 사막': 사막은 식물들이 살아가기엔 극한의 환경이지만 식물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고 있다. 생존 전략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생물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다. 거대한 줄기에 물을 5천ℓ까지 저장할 수 있는 사와로선인장과 물을 찾아 사막을 굴러다니는 부활초의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을 알아본다.

▶24일(화) 오후 9시 40분 '초록 행성의 위기': 대부분의 농사가 대형화, 기업화되면서 야생 식물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지금, 야생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
40년 전통
작명 철학 큰이름
053-241-3456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큰이름 ▼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생명은 사랑입니다
토 오후 5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TV 프로그램

21일 (토요일)

K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6:00 KBS 뉴스
10 환경스페셜2(재)
7:00 KBS 뉴스광장
40 설 특집 다큐 청산도에 살어리랏다
8:30 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40 설 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
11:20 설 기획 팔도밥상
12:00 KBS 뉴스
10 설 기획 국악 한마당

1:05 사랑의 가족
2:00 설 기획 한국인의 밥상(재)
50 설 기획 일꾼의 탄생(재)
3:4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4:10 키스 더 유니버스 2(재)
5:00 KBS 뉴스
10 설 기획 동물의 왕국(재)

6:00 설 기획 동행
7:00 KBS 뉴스
10 설 기획 동네 한 바퀴
8:05 설 기획 동물극장 단짝

9:00 KBS 뉴스 9
40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
10:30 설 특집 다큐 섬, 부뚜막 위에 계절
11:20 KBS 뉴스
30 설 특선영화〈도굴〉
1:20 최초의 질문(재)
2: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초이스
40 한국의 인류유산(재)
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KBS2

5:00 TV쇼 진품명품(재)
6: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7: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8:5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10 설 기획 영화가 좋다
11:20 설 기획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2:50 홍김동전(재)

2:20 연중 플러스(재)
3:2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45 전국노래자랑(재)

6:10 설 기획 불후의 명곡
8:0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9:20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 〈40년만의 비행〉
11:50 개는 훌륭하다(재)
1: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MBC

5:00 테마기행 길
6:00 푸른백세 어영차 바다야(재)
7:00 MBC 뉴스투데이
20 통일전망대
8:00 메카드볼 메가
20 양코르 오일장의 기억
9:20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스페셜
10:05 문화요
35 TV메디컬 약속 스페셜
11:35 전국시대 스페셜
50 MBC 뉴스
12:0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스페셜

1:40 놀면 뭐하니? 스페셜
3: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5 금토드라마 〈금혼령〉(재)
4: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6:25 놀면 뭐하니?
7:55 MBC 뉴스데스크
8:35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40 금토드라마〈금혼령〉(재)

9:50 금토드라마〈금혼령〉
11:10 전지적 참견 시점
12:5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스페셜
2:35 TV예술무대 스페셜

TBC/SBS

5:00 굿데이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7:15 우주경찰 갤럭시 스퀴드
30 마음으로 보는 세상(재)
8:00 싱싱 고향별곡
9:00 테마 스페셜(재)
10:00 TBC클리닉 건강 365
11:00 전국톱10 가요쇼
12:10 SBS 뉴스
20 미운 우리 새끼(재)

2:10 월화드라마(트롤리)(재)
4:30 SBS 뉴스
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5:50 성시경 with friends 자, 오늘은(재)

8:00 SBS 8 뉴스
20 TBC 8 뉴스
35 금토드라마〈법쩐〉(재)

10:00 금토드라마〈법쩐〉
11:10 설날특선영화〈범죄도시〉
1:25 팔도강산 GoGo
2:25 전국톱10 가요쇼(재)
3:30 네트워크특선(재)

EBS1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1)
30 EBS 비즈니스 리뷰 원데이 스쿨
6:00 한국의 둘레길(재)
40 EBS 초대석(재)
7:30 하프와 친구들(종합)
8:00 로보카 폴리(종합)
30 모여라 딩동댕
9:00 번개망토의 비밀(재)
30 히어로 써클
45 나눔 0700
10:15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1)
12:05 최고의 요리비결(종합)
2:20 공상가들(재)
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4:00 글로벌 특선다큐
50 건축탐구 집(재)
5: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6:30 한국기행(종합)
8:00 인간과 바다(재)
50 극한직업
9:40 세계의 명화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저스틴 린 감독, 빈 디젤, 폴 워커 출연)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종합)

22일 (일요일)

KBS1

5:00 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KBS 뉴스 / 10 환경스페셜2(재)
7: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8:00 KBS 뉴스
10 설 특집 다큐 청산도에 살어리랏다
9:00 설 기획 노래가 좋아
10:00 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11:00 설 기획 TV쇼 진품명품
12:00 KBS 뉴스
10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1:50 설 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40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4:10 키스 더 유니버스 2(재)
5:00 KBS 뉴스
10 설 기획 동물의 왕국

6:00 설 기획 열린음악회
7:00 KBS 뉴스
10 이슈 픽 쌤과 함께
8:10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

9:00 KBS 뉴스 9 / 40 역사저널 그날
10:30 예썰의 전당
11:20 KBS 뉴스
11:30 이웃집 찰스(재)
12:20 최초의 질문(재)
1: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재)
2:00 시사 직격(재)
50 사랑의 가족(재)
3:45 생로병사의 비밀(재)
4:3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45 한식의 마음 스페셜(재)

KBS2

5: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생생정보 스페셜
7:00 KBS 재난방송센터
10 영상앨범 산
4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8:40 세컨 하우스(재)
10:00 1박 2일(재)
11:25 설 특집 배틀트립2 스페셜
12:55 월화드라마 〈두뇌공조〉(재)

3:25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50 설 기획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6:20 설 기획 1박 2일
8:0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9:20 설 기획 걸어서 환장 속으로
11:10 설 특선영화 〈뜨거운 피〉
1: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MBC

5:00 푸른백세 어영차 바다야
6:00 포비든앨리4(재)
7:00 MBC 뉴스
10 이 맛에 산다
55 대구MBC 시사톡톡
8:5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0:4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1:55 MBC 뉴스
12:05 출발! 비디오 여행

1: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5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4:3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6:15 복면가왕
7:55 MBC 뉴스데스크
8:30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 프리미어
50 물 건너온 아빠들

10:40 구해줘! 홈즈
12:30 금토드라마 〈금혼령〉(재)

TBC/SBS

5:00 좋은 아침(재)
6:00 SBS 뉴스 / 10 물은 생명이다
4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7:10 헬로카봇 12 붐바
25 수퍼다이노
4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8:30 TBC 보도기획 지역이 희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듣는다
9:00 문화路 채움
30 TV동물농장
10:55 집사부일체2(재)
11:55 SBS 뉴스
12:00 순정파이터(재)

2:00 관계자외 출입금지(재)
3:30 SBS 뉴스
40 설날특집 울진연서(戀書)
4:50 집사부일체2

6:20 런닝맨
8:00 SBS 8뉴스
30 TBC 8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설날특선영화 〈킹메이커〉
1:20 네트워크특선

EBS1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2)
30 배움이 꽃피는 나무(재)
6:00 한국의 둘레길(재)
40 세상의 모든 법칙 스페셜
7:00 나눔 0700(재)
30 트루와 무지개 왕국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딩동댕
9:0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종합)
30 한글용사 아이야(종합)
10:00 자이언트 펭TV 스페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30 극한직업(재)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어린 브로코비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줄리아 로버츠, 알버트 피니 출연)
3:50 글로벌 특선다큐
4:4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5:35 세계테마기행(종합)
8: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9:45 명의(재)
10:40 한국영화특선 〈관상〉 (한재림 감독, 송강호, 이정재 출연)

KBS 053)757-7321 MBC 053)740-9500 TBC 053)760-2000 EBS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11:00 V리그(여자부)GS칼텍스:현대건설
18:00 여자프로농구 하나원큐:신한은행
22:30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2023 〈22일〉
11:00 V리그(여자부)한국도로공사:흥국생명
17:30 V리그 팀별베스트
21:00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2023
23:00 V리그(여자부)KGC인삼공사:IBK기업은행

MBC 스포츠+
12:00 2022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7:30 호주프로야구 +질롱 코리아 : 애들레이드
22:00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2023 〈22일〉
11:30 호주프로야구 +질롱 코리아 : 애들레이드
16:30 웰컴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2023
21:30 PBA 투어 일발장타
24:00 제76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SBS 골프
12:10 2022 KLPGA 제11회 KG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FR
17:00 마이골프 TV
23:00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 〈22일〉
10:30 제1회 이지스카이CC 퀸즈 트로피
17:00 고덕호의 아홉시 티오프
21:00 더블팀 챌린지
23:00 2022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최종전 마이애미 FR

SBS 스포츠
11:25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챔피언십
18:30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흥국생명
24:00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흥국생명 〈22일〉
11:25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챔피언십
15:50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IBK기업은행
18:30 대한민국 배드민턴
24:00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영화·경제

OCN
11:30 내 안의 그놈
19:10 발신제한
23:20 모탈컴뱃 〈22일〉
11:20 모가디슈
16:10 특송
21:00 355
23:30 앵커

스크린
11:40 CSI:NY1
17:50 피끓는 청춘
20:00 존윅 〈22일〉
11:45 CSI:NY1
16:00 강철비
17:45 강철비2:정상회담
20:30 불도저에 탄 소녀

SBS Biz
12:00 용감한 토크쇼 직설
18:00 한문철의 블랙박스
23:00 필살기 고수외전 〈22일〉
11:00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15:00 인문학 특강
19: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3:0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매일경제 TV
12:00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16:30 더 큐
20:00 건강백세 스페셜 〈22일〉
12:00 새러데이 주식 상담쇼
16:00 더 큐
19:00 역전의 부자농부
20:00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드라마·보도

KBS 드라마
11:10 세컨하우스
18:10 영화가 좋다
23:10 신상출시 편스토랑 〈22일〉
11:30 영화가 좋다
15:40 무엇이든 물어보살
17:00 삼남매가 용감하게
22:10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

MBC 드라마
10:30 나 혼자 산다
17:00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22:0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2일〉
11:40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16:10 전지적 참견 시점
21:40 나 혼자 산다
23:30 놀면 뭐하니?

SBS 드라마 Plus
11:30 나는 솔로
16:30 트롤리
23:10 법쩐 〈22일〉
12:40 접속! 무비월드
16:50 법쩐
20:50 나는 솔로
22:20 법쩐

YTN
11:50 뉴스와이드
19:15 특집 김치로드
23:50 자정뉴스 〈22일〉
11:50 뉴스와이드
15:50 뉴스와이드
19:50 YTN24
23:50 자정뉴스

종편

MBN
11:30 고딩엄빠2
19:30 MBN 뉴스센터
23:00 설특집 속풀이쇼 동치미 〈22일〉
12:10 설특집 불타는 트롯맨
16:20 고딩엄빠3
20:20 불타는 트롯맨
23:00 설특집 알토란

TV조선
11:50 화요일은 밤이 좋아 특별판
17:40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21:10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 〈22일〉
12:20 생SHOW! 본격 추억 소환
15:20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
19:50 스타다큐 마이웨이
22:50 낭만비박 집단가출

JTBC
9:00 재벌집 막내아들 정주행
17:50 JTBC 뉴스룸
22:30 대행사 〈22일〉
9:15 재벌집 막내아들 정주행
16:20 대행사
19:40 설 특집 뭉쳐야 찬다2
22:30 대행사

채널A
12:10 토요 랭킹쇼
17:50 아포칼립스:혼돈의 지구방위대
22:20 도시어부 4 〈22일〉
12:10 뉴스A LIVE
16:00 결혼 말고 동거
19:00 뉴스A
23:00 설특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린이·오락

투니버스
12:00 짱구는 못말려11
16: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어둠의 퇴마사
22:00 소드아트온라인 〈22일〉
11:00 브레드이발소3
16:30 다이노파워즈
21:00 네모바지 스폰지밥10
24:00 나만이 없는 거리

JEI재능TV
11:00 극장판 바다탐험대 옥토넛
18:00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22:00 고스트 게임:디지몬 〈22일〉
11:00 바다탐험대 옥토넛
15:30 쉐어TV 버라이어티
19:00 극장판 윌벤져스
23:00 알에서 오리까지

tvN
12:50 서울 체크인
17:30 알쓸인잡
24:00 화사쇼 〈22일〉
10:00 일타스캔들
16:00 유 퀴즈 온 더 블럭
19:30 코미디 빅리그
22:40 외계+인

디스커버리
12:10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
18:10 유니콘 하우스:스타트업 전쟁
23:00 고스트 하우스 〈22일〉
11:30 고생 끝에 밥이 온다
15:00 크라임 퀴즈쇼 풀어파일러
19:30 빈집살래 in Seoul:확장판
23:00 디스커버리 스페셜

종교

cpbc TV
12:00 낮기도와 전례
16:00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22:00 기도를 부탁해 〈22일〉
11:00 특집다큐 학교 가는 길
13:20 공사다몽
19:20 공사다몽
23:20 가톨릭 영상교리

불교BTN TV
12:00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17:00 행복한 오늘
22:00 BTN 뉴스 〈22일〉
11:30 생활 속 염불수행
16:00 진푸티 종사의 보리심
19:00 마음과 몸을 잇다, 사찰 내림음식
21:00 영화 나를 만나는 길

CGN TV
11:00 바이블킹
19:10 지구촌교회 주일예배
23:30 생명의 삶 〈22일〉
11:3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3:5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7:40 잇쉬의 서재
21:0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CTS 기독교TV
12:00 CTS 야기학교
16:0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22: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22일〉
11:00 광림의 시간
16:00 생명의 말씀
19:00 생명의 말씀
23:20 생명의 말씀

다큐·해외

사이언스 TV
12:00 황금나침반
18:30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23:00 다큐S프라임 〈22일〉
11:00 기후변화 지구를 삼키다
15:00 생명의 신비, 지구
19:00 북극:빙하의 땅에 찾아온 여름
23:00 다큐S프라임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11:40 Airport Below Zero
17:10 Epic Trails
23:00 Best in the World Japan 〈22일〉
12:35 Primal Survivor
15:20 Wicked Tuna
19:00 Unknown Waters with Jeremy Wade
23:00 Primal Survivor

BBC World
12:00 BBC World News
18:00 BBC World News
22:30 The Travel Show 〈22일〉
12:00 BBC World News
16:00 BBC World News
18:30 Global Questions
23:00 BBC World News

CNN Int'l
12:00 CNN Tonight
17:00 CNN Newsroom
23:00 Smerconish 〈22일〉
10:00 CNN Newsroom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2:00 Inside Politics

교육방송

EBS플러스1
5: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6:4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7: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지구과학 I
8:2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9:1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화학 I
1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사
1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기하
12: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미적분
13: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14: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
15: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I
16: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17: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18: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19: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세계지리
2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22일〉
5: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6:4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7: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지구과학 I
8:2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9:1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화학 I
1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사
1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기하
12: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미적분
13: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14: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
15: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I
16: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17: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18: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EBS2
6:00 안녕하세요 커레야
7:00 왕초보 영어
8:00 매일 10분 영어
9:00 최고다! 호기심딱지
30 예술아 놀자
10:15 블루이
12:00 위인극장
15:20 형사 가제트
16:10 명의
17: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8: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한국의 둘레길
20:20 EBS 교육진단
21:10 극한직업
22:00 EBS 비즈니스 리뷰
15 클래스 e (3)
13:0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35 마법버스 타요
15:05 오즈, 마법을 찾아서
16:00 출동! 슈퍼윙스
17:00 네가 빠진 세계
18:00 배움이 꽃피는 나무
19:30 과학 다큐멘터리
20:20 EBS 초대석
21: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2:00 EBS 비즈니스 리뷰
15 클래스 e (1) 〈22일〉
6:00 안녕하세요 커레야
30 K-pop 한국어-안녕하세요 캄보디아
7:00 왕초보 영어
8:00 매일 10분 영어 〈22일〉
9:00 한글용사 아이야
30 번개망토의 비밀
10:00 음악 나라의 앨리스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45 슈퍼두퍼 잉글리시
11:15 역사놀이패 아리아리
30 할 수 있다고 2
12:50 최고의 요리비결

방송대학 OUN
9:00 일본어 기초 1
11:15 일본어 기초 1
12:45 유노우?
15:30 유쾌한 반란
18:00 여행영어 1
20:00 여행영어 1
23:00 상담자가 건네는 말
9:00 중국어 3
11:00 중국어 3
13:00 중국어 3
15:30 유쾌한 반란
17:30 선거학개론
18:00 미인공감 3
21:00 THE 명강
23:30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낭만이 있는 곳에
오후 10시
每日新聞뉴스 오후 4시

솔직하고 거침없는 와이프들의 대담한 토크쇼

MBC '미쓰와이프' 23일 오후 5시 40분

MBC TV '미쓰와이프'가 23일(월) 오후 5시 40분에 방송된다.

설 특집 '미쓰와이프'는 빛나는 미모와 센스 있는 입담으로 뭉친 12명의 와이프들이 만나 새롭고 다채로운 토크쇼를 펼친다. 운동선수와 배우, 개그맨, 가수 등의 와이프들이 출연한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깻잎 논쟁의 뒤를 이을 밥풀 논쟁과 축의금 논쟁의 주제에 아내들은 상황에 과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어 '미쓰와이프' 맞춤형 밸런스 게임도 진행된다. 특히 남편의 여사친(여자 사람친구)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여사친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는 깜짝 발언으로 MC들을 당황하게 한다. 예상 밖의 뜨거운 공방전과 솔직하고 대담한 그녀들의 입담이 펼쳐진다.

한편 평소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아내들을 위해 긴 녹화 시간 내내 메이크업부터 중간중간 모니터링과 피드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직장인을 위한 '나만의 번아웃 응급 처방'

EBS 1TV '지식채널e'가 25일(수) 0시 30분에 방송된다.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을 위한 심리상담소' 편에서는 번아웃이 온 마음을 위한 응급 처방전을 전해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연 원장은 번아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주연 원장은 지쳐도 일을 쉬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나만의 응급 처방전을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좋아하는 음악, 음식, 힘들 때 통화할 수 있는 친구 등 나를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로 채워진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두고 마음이 힘든 순간에 꺼내 쓰는 것이다.

이신혜 기자

TV 프로그램

23일 (월요일)

K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 / 10 환경스페셜 2(재)
7:00 KBS 뉴스광장 / 50 인간극장
8:25 설 기획 아침마당
9:30 KBS 뉴스
40 설 특집 다큐
이내말삼 드러보소
10:30 설 특집 다큐
섬, 부뚜막 위에 계절(재)
11:20 설 기획 팔도밥상
12:00 KBS 뉴스
10 설 특집 다큐
청산도에 살어리랏다(재)

1:00 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0 KBS 뉴스
10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한라장사
3: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0 설 기획 노래가 좋아(재)
5:00 KBS 뉴스 5
30 설 기획 동물의 왕국(재)

6:00 설 기획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2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40 설 기획 우리말 겨루기
8:3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 9
10:00 설 기획 가요무대
35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
11:25 KBS 뉴스
35 신년기획 최초의 질문(재)
12:25 역사저널 그날(재)
1:15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2:05 생활의 발견
55 설 기획 TV쇼 진품명품(재)
3:55 이웃집 찰스(재)
4:45 한식의 마음 스페셜(재)

KBS2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생생정보 스페셜
8:00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 2
파워게임(재)
9:00 설 기획 1박 2일(재)
10:40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12:05 설 기획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55 월화드라마
〈두뇌공조〉몰아보기
3:2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5:00 KBS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
〈40년만의 비행〉(재)

7:30 설 기획 걸어서 환장 속으로

9:00 설 특선영화
〈동감〉
11:10 개는 훌륭하다
12:5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재)

MBC

5:00 앙코르 하늘에서 본 세계2
6:00 포비든앨리4
7:00 MBC 뉴스투데이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게임〉(재)
8:00 설특집 다큐
어른 김장하 1부
9:00 설에도 안싸우면 다행이야
11:0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2:55 MBC 뉴스

1:0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스페셜
2:55 일타강사 스페셜
3:50 구해줘! 홈즈 스페셜
5:40 설 특집 미쓰와이프

7:30 MBC 뉴스데스크
8:00 안싸우면 다행이야

9:4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1:20 설 특선영화
〈특송〉
1: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TBC/SBS

5:00 싱싱 고향별곡(재)
6:00 네모세모
7:00 모닝와이드 2부
40 모닝와이드 3부
8:40 낭만여행 떠나보면 알 거야
9:50 생활의 달인(재)
10: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2:00 설날특집 가는 날이 장날

1:50 금토드라마〈법쩐〉(재)
4:20 SBS 뉴스
30 미운 우리새끼(재)

6:30 설날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 골림픽
8:30 SBS 8 뉴스
50 TBC 8 뉴스

9:00 설날특선영화
〈육사오〉
11:00 설날특집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30 문화路 채움(재)
1:00 전국톱10 가요쇼(재)

EBS1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꼬마버스 타요
15 출동! 슈퍼윙스(종합)
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8:00 딩동댕 유치원
20 로보카 폴리
35 그린조끼 구조대
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재)
9:0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0 빅 블루 / 35 타타와 쿠마
40 용감한 소방차 레이(종합)
10:10 한국의 둘레길(재)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0 다문화 고부열전
1:00 바닷가 사람들
50 EBS 다큐프라임(재)
2:45 한국의 둘레길(재)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스토리타임
15 페파 피그
25 그린조끼 구조대(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종합)
6:00 자이언트 펭TV 스페셜
7: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30 한국의 둘레길
50 인간과 바다(재)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 (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채널e(1) / 35 지식채널e(2)
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24일 (화요일)

K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 / 10 환경스페셜 2(재)
7:00 KBS 뉴스광장 / 50 인간극장
8:25 설 기획 아침마당
9:30 KBS 뉴스
40 설 기획 다큐 온(재)
10:30 설 기획 동네 한 바퀴(재)
11:25 팔도밥상 스페셜
12:00 KBS 뉴스
10 설 특집 다큐
청산도에 살어리랏다(재)

1:00 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0 KBS 뉴스
10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백두장사
3:45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5 설 기획 가요무대(재)
5:00 KBS 뉴스
10 설 기획 동물의 왕국(재)

6:00 설 기획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2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40 이웃집 찰스
8:3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 9
40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
10:30 설 특선영화〈세자매〉
12:25 KBS 뉴스 / 35 예썰의 전당(재)
1: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55 생활의 발견
2: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KBS2

3: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8:00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2
새로운 시작(재)
9:00 설 특집 세컨하우스
스페셜
10:30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재)
12:25 설 기획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5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4:40 설 기획 불후의 명곡(재)

6:30 설 기획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8:30 설 기획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설 특선영화
〈발신제한〉
11:40 월화드라마
〈두뇌공조〉몰아보기(재)
1:10 설 기획 영화가 좋다(재)

MBC

5:00 포비든앨리4(재)
6:00 푸른백세 어영차 바다야(재)
7:00 MBC 뉴스투데이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게임〉(재)
8:00 설 특집 다큐
어른 김장하 2부
9:0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완주 특집
11:20 설 특집 미쓰와이프 스페셜

1:10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3: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설에도 놀면 뭐하니?
5:30 설특집 미쓰와이프

7:30 MBC 뉴스데스크
8:00 설에도 나 혼자 산다
9:35 설 특선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11:50 TV예술무대
1:20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 프리미엄

TBC/SBS

5:00 TBC 클리닉 건강 365(재)
6:00 싱싱 고향별곡(재)
7:00 모닝와이드 2부
40 모닝와이드 3부
8:40 TV동물농장
10:00 설날특선영화
〈장르만 로맨스〉
12:00 SBS 뉴스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30 순정파이터(재)
2:20 설날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 골림픽(재)
4:20 SBS 뉴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재)

6:00 설날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 골림픽
7:50 SBS 8 뉴스
8:10 TBC 8 뉴스
20 설날특선영화〈범죄도시2〉

11:20 설날 특집 신발 벗고 돌싱포맨
50 TBC 댄스서바이벌 춤신춤왕(재)
1:10 마음으로 보는 세상

EBS1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꼬마버스 타요
15 출동! 슈퍼윙스(종합)
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8:00 딩동댕 유치원
20 로보카 폴리 / 35 명탐정 피트3
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재)
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20 빅 블루 / 35 타타와 쿠마
40 용감한 소방차 레이(종합)
10:10 한국의 둘레길(재)
30 한국기행(재) /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1:00 바닷가 사람들
50 EBS 다큐프라임(재)
2:45 한국의 둘레길(재)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15 페파 피그 / 25 명탐정 피트3(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종합)(재)
6:00 숨의 오디세이
30 엄마는 쏟아지는 비처럼
7: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30 한국의 둘레길 / 50 극한직업(재)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 50 EBS 다큐프라임
10:45 건축탐구 – 집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 (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채널e(1) / 35 지식채널e(2)
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KBS 053)757–7321 MBC 053)740–9500 TBC 053)760–2000 EBS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11:00 날아라슛돌이3기
17:50 아이러브 바스켓볼
21:00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4일〉
10:00 V–리그 팀별베스트
17:00 V리그 최고의 세트
21:30 EVERYDAY 스페셜V
22:00 2022–2023 V리그

MBC 스포츠+
11:00 2023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
18:00 엠스플레이리스트
22: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HL 〈24일〉
12:00 전국 시도대항 장사 씨름대회
16:00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18:30 카타르월드컵 2022 골모음
23:00 WBA 라이트급 타이틀매치

SBS 골프
10:40 토탈골프 챔피언십 프로vs아마
19:00 임진한의 레슨캠프 in경주
23:00 임진한의 인생샷 〈24일〉
12:00 2022 KLPGA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FR
16:20 다시보는 안캐디 박현경.임희정.이소미
19:00 임진한의 레슨캠프 in 경주
23:30 SBS골프아카데미 홍지원.신현주

SBS 스포츠
11:25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18:00 주간배구
21:25 웰컴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24일〉
10:55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16:00 22–23 ISU 쇼트트랙 월드컵 메달 모음
19:55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23:10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

영화·경제

OCN
10:50 보이스
18:00 원더우먼 1984
23:50 악인전 〈24일〉
12:30 외계+인
17:30 카시오페아
22:00 범죄도시
24:30 범죄도시2

스크린
11:15 불도저에 탄 소녀
15:55 역린
23:50 좋은 친구들 〈24일〉
11:15 아이캔스피크
16:25 월요일이 사라졌다
21:50 동감
24:10 배드티처

SBS Biz
12:00 용감한 토크쇼 직설
18:00 한문철의 블랙박스
22: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4일〉
11:00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15:00 인문학 특강
18:00 한문철의 블랙박스
23:30 필살기 고수외전

매일경제 TV
12:00 설특집 극찬기업 스페셜
16:00 식스센스
20:00 설특집 매거진 투데이 스페셜 〈24일〉
11:00 설특집 더 큐 스페셜
16:00 고! 살집
19:00 특집대담 2023 한국 경제 전망
23:00 설특집 이슈&피플 스페셜

드라마·보도

KBS 드라마
12:0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18:4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3:30 걸어서 환장 속으로 〈24일〉
11:5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15:5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18:3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3:30 걸어서 환장 속으로

MBC 드라마
11:00 구해줘! 홈즈
16:3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3:40 전지적 참견 시점 〈24일〉
11:20 나 혼자 산다
16:30 나 혼자 산다
19:40 안싸우면 다행이야
23:10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SBS 드라마 Plus
10:10 나는 솔로
16:20 법쩐
22:20 미운 우리 새끼 〈24일〉
11:30 나는 솔로
16:30 미운 우리 새끼
20:10 법쩐
24:30 미운 우리 새끼

YTN
11:50 뉴스와이드
19:20 뉴튜브
23:50 자정뉴스 〈24일〉
11:50 뉴스와이드
15:50 뉴스와이드
19:50 YTN24
23:50 자정뉴스

종편

MBN
12:00 나는 자연인이다
17:00 속풀이쇼 동치미
22:40 설특집 당신 참 좋다 〈24일〉
12:50 불타는 트롯맨
17:50 MBN 뉴스와이드
20:10 설특집 엄지의 제왕
21:40 불타는 트롯맨

TV조선
11:40 국가가 부른다 특별판
17:20 빨간 풍선
24:00 백반기행 특별판 〈24일〉
10:30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
16:00 조선의 사랑꾼
21:00 TV CHOSUN 뉴스9
24:30 백반기행 특별판

JTBC
09:15 재벌집 막내아들 정주행
17:10 대행사
22:30 최강야구 〈24일〉
09:15 재벌집 막내아들 정주행
17:10 대행사
20:20 톡파원 25시
22:00 최강야구

채널A
12:00 뉴스&이슈
17:10 결혼 말고 동거
20:10 순정시대 〈24일〉
12:00 뉴스&이슈
16:0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9:00 뉴스A
22:40 다큐 금쪽같은 오둥이

어린이·오락

투니버스
11:00 브레드이발소3
16:00 요괴워치 음표
22:00 명탐정코난 극장판 〈24일〉
11:00 브레드이발소3
16:00 안녕자두야4:자두와친구들
20:00 네모바지 스폰지밥13
24:00 나만이 없는 거리

JEI재능TV
12:00 극장판 엉정이 탐정
18:00 안녕 자두야
22:00 마계학교 이루마군 시즌2 〈24일〉
12:00 극장판 프린스 코기
16:30 슈퍼텐 전설의 슈퍼리온
19:00 고스트게임:디지몬
23:00 매지컬파티

tvN
12:30 일타스캔들
18:30 카시오페아
22:10 서울 체크인 〈24일〉
10:50 백두산
16:30 일타스캔들
19:30 프리한19
24:10 서울 체크인

디스커버리
11:3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9:00 나는 솔로
21:50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24일〉
11:20 김구라의 라떼9
16:00 나는 솔로
19:00 극한초보
22:50 김구라의 라떼9

종교

cpbc TV
12:00 낮기도와 전례
17:00 가톨릭 둘레특강
22:00 기도를 부탁해 〈24일〉
11:00 황창연 신부의 행복특강
15:00 채널고정! 건강을 드립니다
19:00 공사다망
23:20 가톨릭 영상교리

불교BTN TV
12:00 불교무형문화유산 땅설법
17:00 행복한 오늘
22:15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24일〉
11:30 생활 속 염불수행
16:00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
19:30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23:00 호남의 선맥 다선일미의 법향 수산 대종사

CGN TV
11:00 터너라운드 텐트
19:30 더 멋진 당신
23:30 생명의 삶 〈24일〉
11:50 CGN 월드뉴스
15:40 사론컵밥
19:30 어메이징 그레이스
22:20 바이블킹

CTS 기독교TV
12:20 신앙에세이
16:00 바이블챌린지
22:40 백세인생 〈24일〉
11:40 CTS 뉴스
16:00 한성 하키우키TV
19:30 아주 특별한 찬양
24:00 콜링갓

다큐·해외

사이언스 TV
12:00 사이언스 스페셜
18:00 테마기행 세기의 절경
22:00 월드베스트 세계의 절경:불 〈24일〉
12:00 사이언스 스페셜
16:00 360도 우리가 만난 세상
20:00 의사가 온다
24:00 테마기행 세기의 절경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11:40 Best in the World Japan
17:10 Unknown Waters with Jeremy Wade
22:00 Primal Survivor 〈24일〉
11:40 Giant Pop–Up Constructions
15:20 Giant Pop–Up Constructions
19:00 Around the World in 80 Dishes
23:00 Wicked Tuna

BBC World
12:00 BBC World News
18:00 BBC World News
22:30 Impact with Yalda Hakim 〈24일〉
12:00 BBC World News
15:30 World Business Report
18:30 HARDtalk
23:30 World Business Report

CNN Int'l
12:00 African Voices Changemakers
17:00 CNN Newsroom
23:00 First Move 〈24일〉
10:00 Anderson Cooper 360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2:00 First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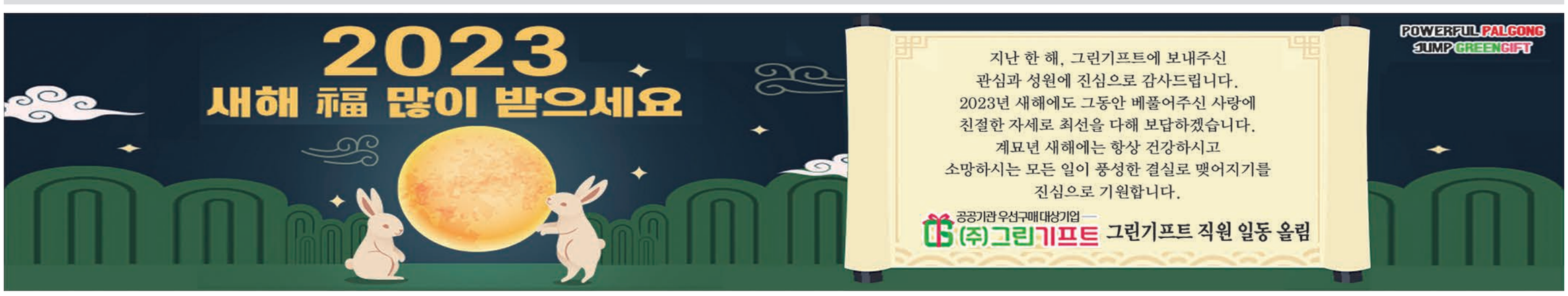
교육방송

EBS플러스1
5:00 [개념완성 문항편] 물리학 I
50 [개념완성 문항편] 생명과학 I
6:40 [개념완성 문항편] 화학 I
7:30 [2024 수능개념] 주혜연의 해석공식 기출구문
8:20 [2024 수능개념] 노베이스탈출 개념시작, 서지니의 수학 I
9:10 [2024 수능개념] 완전 초보를 위한 정인수의 물리학 II
10:00 [2024 수능개념] 생명과학 II 의 주연은 너!
50 [2024 수능개념] 박민이의 정치와 법 개념, 요 정도쯤이야
11:40 [2024 수능개념] 류성완의 완벽한 세계사
12:3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상위권을 위한 발전)
13:2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하위권을 위한 기초)
14:10 [개념완성] 정치와 법
15:00 [개념완성] 정치와 법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개념완성] 정치와 법 (하위권을 위한 기초)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수학 I
17:3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미적분 〈24일〉
5:00 [개념완성 문항편] 물리학 I
6:40 [개념완성 문항편] 화학 I
7:30 [2024 수능개념] 주혜연의 해석공식 기출구문
8:20 [2024 수능개념] 노베이스탈출 개념시작, 서지니의 수학 I
9:10 [2024 수능개념] 완전 초보를 위한 정인수의 물리학 II
10:00 [2024 수능개념] 생명과학 II 의 주연은 너!
11:40 [2024 수능개념] 류성완의 완벽한 세계사
12:3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상위권을 위한 발전)
13:2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하위권을 위한 기초)
14:10 [개념완성] 정치와 법
15:00 [개념완성] 정치와 법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개념완성] 정치와 법 (하위권을 위한 기초)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수학 I
17:3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미적분

EBS2
6:30 EBSe 생활영어
7:30 왕초보 영어
8:00 Seasame street
9: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0: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6:00 스쿨랜드 – 과학
17:20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8:00 지구탐사 이야기
19:05 도전! 나도 과학자
20:00 한국의 둘레길
21:00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50 지식채널e(1)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20 EBS 비즈니스 리뷰
11: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2:0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5 도전! 나도 과학자
14:00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5:00 야옹! 클래식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수학 I
19:05 도전! 나도 과학자
20:00 한국의 둘레길
21:00 문해력 유치원 〈24일〉
6:30 EBSe 생활영어
7:30 왕초보 영어
8:00 Seasame street
9: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9:3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0: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1: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2:0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5 도전! 나도 과학자
14:00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5:00 야옹! 클래식

방송대학 OUN
9:00 사진영상론
11:00 상담자가 건네는 말
13:00 일본어 기초2
15:00 사회복지역사
19:30 비급 고전
22:00 청소년과 부모
24:00 행복에 이르는 지혜
〈24일〉
9:00 사진영상론
10:00 청소년과 부모
11:45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13:00 일본어 기초2
15:00 사회복지역사
19:30 비급 고전
22:00 청소년과 부모
24:00 행복에 이르는 지혜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즐거운 라디오
오후 6시
每日新聞뉴스 오후 4시



2022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발표 / 전문대학부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1년 연속 1위**

전문대학 최초 4년제를 넘어 석사까지!

영진전문대학교

초정밀금형기술
석사도

'마이스터대학' 석사과정 전국 최초 선정

2021 교육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초정밀금형기술 석사 과정 운영

취업중심 4년제
학사도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전문대학 유일 2개 분야 선정

2021 교육부, 4년제 명문대학과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분야 120여억 원 지원

교육부 선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영진

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재정지원 사업(대학혁신지원, LINC 3.0, HiVE 등) 선정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전문대학) 11년 연속 1위**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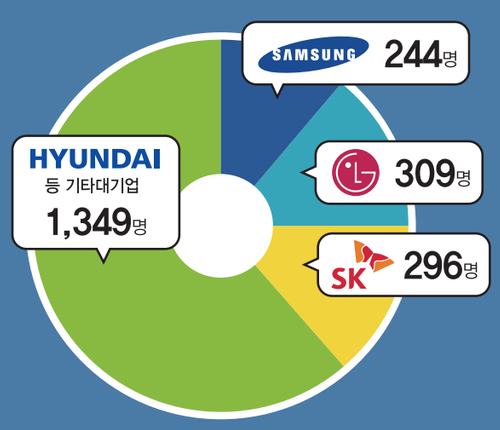
대기업 취업도! 해외선진국 취업도! 격이 다른 취업 1위!

최근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2017–2023 교육부 발표
[대학정보공시 기준]
(졸업생 3,000명 이상 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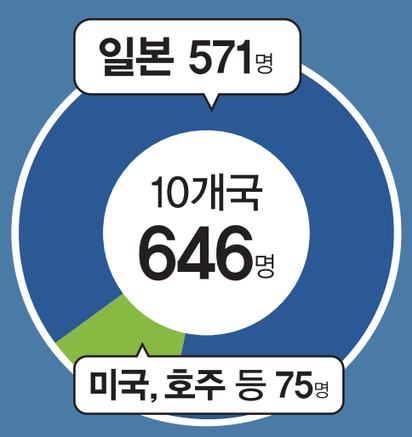
최근 6년간
대기업 취업자 2,198명

2018–2023 교육부 발표 및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6년간
해외취업 10개국 646명

2018–2023 교육부 발표 및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주문식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2023학년도 자율모집 | 2023. 2. 28.(화) 24:00까지
대학자체/평생직업교육전형, 만학도/재직자전형, 정원외 전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yju.ac.kr) 참조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박제근·최재천·서정화·박한오 씨

〈서울대 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 〈열린여성센터 원장〉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포스코청암재단 2006년 제정

과학·교육·봉사·기술 부문 선정
상금 2억원씩·시상식 4월 예정

과학상–박제근 씨

교육상–최재천 씨

봉사상–서정화 씨

기술상–박한오 씨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김선욱)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교육상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봉사상에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원장, 기술상에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를 각각 선정했다.

박제근 교수는 세계 최초로 '2차원 자성체' 분야의 기존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기적·자기적 성질 조절이 가능한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적용 시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2007년 이화여대에 국내 최초로 '에코과학부'를 창설해 국내 생명과학 분야 융합 교육·연구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집필 활동을 통해 '통섭'의 화두를 던지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는 새로운 교육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생명다양성재단' 설립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주도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과 대중 강연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정화 원장은 '여성 노숙인'을 위해 24년간 헌신해 온 사회 활동가다. 여성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 회복 지원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여성 노숙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4년에는 '열린여성센터'를 설립해 19년간 1천800여 명의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도왔다. 노숙인 대상의 매입 임대주택 등 주거정책을 제안하고 시범 운영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

박한오 대표이사는 1992년 회사를 창업한 이후 30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유전자 합성·증폭·추출 시약 및 관련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생명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과 확장에 크게 기여한 1세대 바이오 엔지니어이자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96개의 유전자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반자동식 분자 진단 시스템과 진단 키트의 자체 개발로 2009년 확산된 신종플루의 조기 종식에 큰 도움을 줬다. 나아가 합성 유전자 대량 생산 및 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 창업 이념인 창의·인재 육성·희생·봉사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 포스코청암상을 제정해 과학, 교육, 봉사, 기술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부문별로 2억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4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대구수성경찰서 설 맞아 민·경 합동순찰 실시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19일 설명절을 앞두고 강·절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들안로 주택가·상가 일대에 대해 경찰과 시민명예경찰, 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KBI국인산업 석적고에 장학금 1천만원

㈜KBI국인산업(대표이사 김선진, 정무학술장학재단)은 18일 경북 칠곡군 석적고등학교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김선진 대표이사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국주정공업 500만원 상당 후원품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7일 풍국주정공업㈜(대표이사 이한용)으로부터 설명절 꾸러미 50박스(50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떡국, 곰탕 등 식료품은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선웅 다산에너지 대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다산에너지(대표 김선웅)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성금 500만원을 19일 안동시에 전달했다. 2013년 창립해 대전시에 본사를 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중구 약사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대구 중구 약사회(회장 노수균)는 설명절을 맞아 13일 2023년도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대구 중구청에 기탁했다.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내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산시낙농협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경산시낙농협회(회장 오준기)는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오준기 회장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레일 경산역 취약계층에 설 선물세트 나눔

코레일 대구경북본부 경산역(역장 문장수)은 18일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정(情) 나누기 행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소외된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이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육류 선물세트 및 떡국떡을 포장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주역 윤정희 씨 별세

성년후견인 소송 종결될 전망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영화계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숨을 거뒀다.

1960~80년대 은막을 장식했던 윤 씨는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신인배우 오디션에서 선발돼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그해 대종상영화제 신인상, 청룡영화상 인기여우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듬해에는 작품 '안개'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도 받았다.

1960년대 문희, 남정희와 함께 여자 영화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배우로서 활동한 작품은 무려 280편에 달한다. 주요작으로는 '신궁'(1979), '위기의 여자'(1987), '만무방'(1994) 등이 있다.

1973년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돌연 프랑스 유학을 선언했고, 1976년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결혼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몬트리올영화제 심사위원(1995), 제12회 뭄바이영화제 심사위원(2010), 제17회 디나르영화제 심사위원·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2006) 등을 지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배우로서 활동은 중단했다.

윤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남편 백건우 씨, 바올리니스트인 딸 백진희(46) 씨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해왔다.

한편 윤 씨의 별세로 대법원까지 갔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윤 씨의 성년후견인은 딸 백 씨다.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 씨의 동생은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윤 씨 동생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 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이승엽야구재단 칠곡경대어린이병원에 1천만원

불우 환아 수술비 지원

(재)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19일 칠곡경북대어린이병원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의 후원금 전달은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여덟 번째로, 꾸준히 불우 환아를 위한 수술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도 불우 환아 수술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엽 이사장(두산베어스 감독)은 "매년 불우 환아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환아들과 가족들을 응원하고 곧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부디 어린 친구들이 씩씩하게 이겨내 주었으면 한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계속해서 후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매년 어려운 환자를 돕는 병원 복지 후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승엽야구장학생 사업, 대구경북 지역 야구 꿈나무를 위한 야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개 업

▶**보강한의원**(김찬우)=대구시 중구 달성로1(대신동 872, 신남네거리 2층). 053)253-8515, 010-9096-0012.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이·취임식 개최

의과대학장 박순우 교수 병원장 이창형 교수 연임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노광수)은 19일 오후 5시 루가관 7층 강당에서 '의과대학장 이·취임식 및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에는 박순우 교수(예방의학)가 취임했고, 제20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는 이창형 교수(소화기내과)가 연임한다.

박 신임 학장은 경북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학교 및 청소년 보건, 청소년 흡연 예방, 건강증진 분야의 권위자이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교무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한국학교보건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모자보건학회 간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학술 활동을 거쳤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부에서 다수의 자문위원 및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지난 2021년 19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던 이창형 병원장은 연임해 제20대 병원장을 맡게 됐다. 이 병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간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특히 19대 병원장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서도 병원 정상화를 위해 헌신했고,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최선을 다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안동 첫 父子 '아너 소사이어티' 김준·김인근 씨

안동시 1호·15호 아너 회원 가입

경북 안동시에서 최초로 부자(父子)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김인근 도서출판 성심 대표는 19일 경북 152호(안동시 1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3년 안동시 1호 아너 회원에 가입한 김준 씨의 아들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안동시청에서 김인근 도서출판 성심 대표와 권기창 안동시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옥희 안동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열었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는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으니, 항상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버지께서 성심출판사를 창업하신 지 40년째인 뜻깊은 해에 아버지와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웃사랑 실천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린 안동시에 최초 부자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해 기쁘다"며 "김인근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모금회도 건강한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임주섭 영남대학교 교수 '2022 한국음악상' 본상

임주섭 영남대학교 작곡과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의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2022 한국음악상' 본상을 수상했다.

'2022 한국음악상'은 (사)한국음악협회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1979년 제정됐다.

임 교수는 영남대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천마아트센터 관장과 음악대학장을 역임했다. 또 제37회, 제39회 대한민국작곡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2021 문화예술 공로상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제42회 대구시 문화상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음악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손호영 경북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행정감사 선임

손호영(58·사진) 경북축구협회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행정감사로 선임됐다.

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임원 위촉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손호영 행정감사는 10년 이상 경북축구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해오고 있다.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는 안동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대통령 표창에 이어 지난해 경상북도 문화상 체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전 축구 국가대표인 이동국(43)과 조병득(6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이석재(65) 경기도축구협회장이 새롭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

대회분과위원장에는 정해성(65) 전 국가대표팀 코치, 기술발전위원장에는 이임생(52) 전 수원삼성 감독, 심판위원장에는 김동진(50) 전 국제심판, 사회공헌위원장에는 전 국가대표 조원희(40)가 새로 임명됐다.

새로 선임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최우각·박경남 회장 '학교 밖 청소년'에 기부

〈대성하이텍〉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로 청소년에 관심
남구 꿈드림 3천400만원 상당 시설 지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인 ㈜대성하이텍 최우각·박경남 회장 부부는 19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사업을 위해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운영법인 ㈔대구YWCA·센터장 황상선)에 기능보강 지원사업비 3천4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남구 꿈드림을 방문한 박경남 아너 소사이어티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구 꿈드림은 학업·상담·복지 지원·직업역량 개발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센터로 매년 28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 중이다.

19일 남구 꿈드림을 방문한 박경남 아너 소사이어티는 '학교 밖 청소년' 기능보강 지원사업비 3천400만원을 기탁했다.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제공

지난해 8월 청소년 전용공간 개소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금으로 컴퓨터 및 노트북, 책상 등을 구입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을 통해 검정고시·수능시험 대비 멘토링, 개인 학습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공은혜 기자 kong@imaeil.com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최주원 경북경찰청장과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최성환)는 지난 18일 문경 아동복지시설 신망애육원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밝게 생활하는 모습과 시설을 둘러봤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안동신시장 등 전통시장에 방문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과일·건어물 등 차례용품을 직접 구매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전통시장 치안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고충도 들었다. 이어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일대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도민들과 고향을 오가시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교통관리와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경북경찰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인사

◆대구경찰청

〈경정 승진〉▷강북서 홍은표 ▷지방청 제2기동대 이성훈 ▷남부서 배기운 ▷중부서 장웅기 ▷서부서 현종화 ▷강북서 김조한 **〈경감 승진〉**▷서부서 안지혜 유민호 이승재 ▷지방청 제1기동대 김한겸 박성룡 ▷동부서 권도형 문철환 박영민 김민경 노경구 ▷중부서 박찬희 ▷지방청 제3기동대 손성우 박철수 ▷지방청 경찰특공대 김성우 ▷북부서 최용규 정규휘 ▷성서서 김승진 ▷달성서 김대현

◆케이메디허브(대경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장급 전보〉▷전략기획본부 혁신성장부장 박주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응용기술부장 손재범 ▷첨단기술부장 이은희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장 서수원 **〈팀장급 전보〉**▷직속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장 한대용 ▷전략기획본부 글로벌사업팀장 최우석 ▷지역기업육성팀장 천학사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장 노지형 ▷기술실용화팀장 신화희 ▷제품제작팀장 황수연 ▷창업지원팀장 임형규 ▷의료융합팀장 최종률 ▷바이오평가팀장 천정무 ▷기술문서심사팀장 이지윤 ▷전자파평가팀장 김태형 ▷실증사업화지원팀장 박상욱 ▷임상평가지원팀장 이호열 ▷의료빅데이터팀장 오성석 ▷전임상센터 미래의료기술연구동건축단TF팀장 홍상욱 ▷생체영상팀장 김희경 ▷융복합평가팀장 권태준 ▷의약생산센터 품질관리팀장 남주형 ▷고형제생산팀장 이청훈

이상길 엑스코 사장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취임하자마자 경영혁신 부문 대상

이상길(사진 가운데)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엑스코에 따르면 이 사장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해 9월 대구시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7대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안 마련에 방향키 역할을 한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장이 발표한 경영혁신계획은 정원 조정 등 조직 구조 축소,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임원 연봉을 평균 30% 이상 자진 삭감하고 20년간 이어온 관사를 폐지했다. 이로써 엑스코는 연말 문화행사 매출액만 2021년 대비 약 1.6배 증가했으며, 회사 전체 매출액과 수익은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길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한동대 아지트 팀의 줌 회의 모습. 한동대 제공

한동대 첫 학생 주도 'SW 해커톤대회' 26~28일 포스텍 등 지역대 50여명 참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SW 해커톤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한동대 ICT 창업학부 이원섭 교수가 지도하는 16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아지트(Azit) 팀은 26~28일 2박 3일간 한동대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에서 해커톤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한동대와 포스텍 학생 50여 명은 금융·부동산·주택청약 분야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보험처리·세금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시간 관리·알람 서비스 등 사회 초년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여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성훈 기자 bsh@imaeil.com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력 12월 30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답답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꾹 참고 있던 마음을 표출해야 합니다. ▶48년생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뒤탈이 없는 날입니다. ▶60년생 지금 포기하기는 다소 아쉬운 듯하니, 조금만 더 헤쳐 나가보길 바랍니다. ▶72년생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 당신의 어깨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날입니다. ▶84년생 누군가와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면 화해를 시도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소

▶37년생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49년생 매사에 무슨 일이든 지나침을 삼가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생각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73년생 오늘은 당신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바가지를 쓰거나 지갑을 잊어버리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범

▶38년생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50년생 무리한 일이나 계획을 세우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62년생 오랜 습관을 고치면 일과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74년생 이동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운입니다. ▶86년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공부나 사업을 시도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토끼

▶39년생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야 하는 날입니다. ▶51년생 너무 의욕만 앞세워 일을 하면 당신이 기대하는 때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63년생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75년생 한 시스템에 갇혀 일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87년생 나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용

▶40년생 생각지도 않은 일로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52년생 나의 숨겨둔 아이디어와 생각을 알아봐주는 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4년생 새로운 목표를 세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기 적합한 날입니다. ▶76년생 일시적인 어려움에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야 합니다. ▶88년생 새로운 업무를 맡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뱀

▶41년생 괜히 금전에 욕심을 보이니 사기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53년생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필요한 날입니다. ▶65년생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지출도 많아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77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바쁜 일이 이어지니 신경이 날카로워져 다투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말

▶42년생 돈을 쌓아두지만 말고 어느 정도 베풀어야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54년생 지난 일이나 과거에 미련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66년생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기대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78년생 분위기에 휩싸여 충동 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겠어요. ▶90년생 사소한 다툼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커플은 화해하기 안성맞춤인 날입니다.

양

▶43년생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오늘의 계획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55년생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당신을 당황하게 하지만 그 속에 행운이 들어 있습니다. ▶67년생 재물운이 별로 좋지 않으니 생각지 않았던 낭비를 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9년생 재물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니 걱정할 일이 없는 날입니다. ▶91년생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사랑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한 템포 쉬어가 보세요.

원숭이

▶44년생 주위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손을 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56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8년생 굳이 돈을 좇지 않아도 금전이 당신에게 붙으니 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80년생 내게 필요한 변화의 기운이 들어오니 반드시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92년생 첫인상은 별로일 수 있지만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닭

▶45년생 잃어버렸던 물건이나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날입니다. ▶57년생 나의 생각과 소신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69년생 내가 추진해 온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니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겠어요. ▶81년생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몸이 너무 무거우니 진행이 더뎌지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93년생 멀게만 느껴지던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 한구석을 차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개

▶46년생 마음의 평온함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내가 빛이 나는 하루입니다. ▶58년생 본인이 만든 감투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씌워준 감투로 힘차게 나아가는 날입니다. ▶70년생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니 일을 시작하고픈 의지가 강해지는 날입니다. ▶82년생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말다툼을 막아야 합니다. ▶94년생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 날입니다.

돼지

▶47년생 조금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게 생활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59년생 금전에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엉뚱한 일에 휘말려 진행하던 다른 일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83년생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동의 가능성이 커지는 하루입니다. ▶95년생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1월 22일(음력 1월 1일)

▶36년생 온몸과 마음에 긴장이 감도니 어떤 일을 해도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48년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쯤 지갑을 열어 봐도 좋은 날입니다. ▶60년생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2년생 수입에 비해 과한 지출을 하고 싶지 않다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84년생 주위에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공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날입니다.

▶37년생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으로 별것 아닌 일에도 실수를 남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49년생 이해득실을 따져 이득이 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61년생 상대방의 변덕으로 힘들더라도 차분히 당신의 생각을 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3년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 금전적인 도움을 청해봐도 좋겠어요. ▶85년생 애정운은 썩 좋지 않지만 학업운이 좋으니 일에 집중하는 날로 보내보세요.

▶38년생 주변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니 둘 사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0년생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니 본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하루입니다. ▶62년생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윗사람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74년생 문서의 작성,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하는 것에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86년생 조금은 튀더라도 자신의 확고한 스타일을 살려 이성을 만나면 좋은 날입니다.

▶39년생 쇠약했던 기운이 많이 좋아지니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기 좋은 날입니다. ▶51년생 자신의 문제보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 마음이 편치 못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75년생 재물운이 상승 곡선을 타니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익이 따르는 날입니다. ▶87년생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40년생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니 감정지수가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52년생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64년생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76년생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88년생 오늘은 인연의 기운이 다소 약하니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41년생 누군가의 추천으로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오르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53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65년생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케줄이 엉망이 되니 번거롭고 바빠질 수 있습니다. ▶77년생 오늘은 수입도 많지만 그만큼 지출이나 소비 또한 늘어나게 되는 하루입니다. ▶89년생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진로를 변경하면 좋은 하루입니다.

▶42년생 심리적으로 불안한 날이니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해 보세요. ▶54년생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잘 따져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66년생 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청할수록 유리한 하루입니다. ▶78년생 계획과 무관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솔로라면 평소 날 좋게 보던 사람이 소개팅이나 미팅을 주선하는 등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43년생 심적으로 우울해지니 그리운 사람이 생기고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55년생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나와 잘 맞는 동업자나 후임자를 찾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79년생 충동적인 소비나 지출을 막고 싶다면 미리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91년생 애정이 조금 식을 수 있으니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기 좋은 날입니다.

▶44년생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라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56년생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 주변 상황이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68년생 허황된 꿈은 줄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는 날입니다. ▶80년생 구설수와 사기수를 줄이고 싶다면 나의 욕심을 겉으로 표출하지 말아야 해요. ▶92년생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45년생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깜빡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57년생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다면 마음속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69년생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기대이상의 행운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81년생 좋은 조건으로 제안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93년생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히 다가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4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싶지 않다면 독불장군 같은 태도를 지양하세요. ▶58년생 괜한 곳에 신경 쓰다 하루가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70년생 뜻밖의 소득이 생기는 날이니 과감한 투자나 도전을 해 봐도 좋겠어요. ▶82년생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날입니다. ▶94년생 상대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속 생각에 집중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7년생 구두쇠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면 눈에 띄게 재물과 돈을 밝히지 말아요. ▶59년생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가게 됩니다. ▶71년생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거나 남의 말을 들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83년생 재물운이 좋은 하루이니 지출이 있더라도 곧 돈이 채워지겠습니다. ▶95년생 기존의 연인보다 아예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나은 하루입니다.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는’ 향나무

(중국) 양나라에서 의복과 향물(香物)을 보내왔을 때 (신라) 사람들은 그 이름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수소문하니 고구려에서 온 스님 묵호자(墨胡子)가 말하기를 “이는 향이라는 것으로 태우면 향기가 몹시 풍기는데, 정성이 신성(神聖)한 곳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신성은 삼보(三寶)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만일 이것을 태우며 발원(發願)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무렵 병이 위중한 왕의 딸이 있어서 묵호자를 불러 향을 피우고 축원하게 했더니 공주의 병이 이내 나았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19대 눌지왕 시절 중국 양(梁)나라에서 향을 처음 보내왔을 때 일화다. 언제부터 향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향을 피웠다고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 경북 울진군 후정리 향나무.

‘꽃보다 향기’ 향나무

양나라에서 신라로 들여온 향물은 우리나라 토종 향나무가 아니라 침향이나 백단이 아닌가 싶다. 침향나무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에서 자란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의 땅 속에 오래 묻혀 있으면 나무의 목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지성분이 생겨 굳어지면서 단단한 덩어리로 된다. 수지는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워서 침향(沈香)으로 불렀고 한방에서 귀중한 약재로 쓰였다.

비싼 수입 침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왕실이나 귀족 등 특권층 정도다. 향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종교의식에 사용하면서부터다. 종교의 발상지는 비교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불결한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웠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고 종교 행사가 일반적으로 열리면서 향의 쓰임이 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목향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토종 나무 중에서 향나무만 한 게 없다. 보통 나무의 향은 꽃이나 잎, 열매에 정유(精油)로 들어있으나 향나무는 나무 속 심재에 향이 많다. 나무를 베어 말려도 향기가 금세 없어지지 않고 은은하게 지속된다.

종교 행사에 쓰이던 향의 효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기운을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해주어 천지신명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고 여기게 됐다. 그래서 각종 제사나 의식에서 가장 먼저 향불을 피웠다. 또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 정화의 의미로도 향을 태운다. 주로 향나무를 얇게 저며서 향로에 넣는다.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 나무를 자단(紫檀)이라 하고,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뜻으로 목향(木香)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최고령 도동 향나무

우리나라에서 향나무 자생지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은 울릉도다. 지난 2013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 도동항 절벽 꼭대기에 있는 향나무의 나이는 무려 2천300년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다. 최고령급 노거수로 인정받아온 강원도 정선군 두위봉에 있는 천연기념물 주목이나 경상남도 하동군 국사암의 ‘사천왕수’라 불리는 수령 약 1천200년의 느티나무,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수령 1천100~1천200년의 은행나무를 능가하는 나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향나무 나이가 3000살이 넘는다고 믿는다. 화산암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내륙에서 자라는 향나무보다 성장이 더디므로 나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울릉도 향나무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지에서는 오랜 남벌로 자생지를 찾기 힘들지만 섬에서는 자생하는 향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쌍향수.

울릉도 향나무도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수난을 당해왔다. 조선시대 조정에서 필요한 향나무를 2년에 한 번씩 조달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 갑인(1794) 6월 3일의 강원도 관찰사가 올린 울릉도 수토 장계에는 “예전에 한 해 걸러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듬성듬성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봐서 그 당시에 이미 자생지가 손상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를 틈타 벌목과 반출이 성행했고, 사람 발길이 닿는 자생지의 훼손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금은 울릉도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향나무를 노송이라 불러

옛 책에 향나무는 노송(老松) 혹은 만년송(萬年松)으로 나온다. 조선시대 최초 원예서인 『양화소록』에는 「만년송」의 생김새를 붉은 뱀[赤蛇]으로 묘사하고 모습에 따라 가품(佳品)과 하품(下品)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만년송은 반드시 층층의 가지와 푸른 잎이 마치 실이 아래로 드리운 듯하고, 줄기는 구불구불하고 붉은 이무기가 숲에서 뛰어오르는 듯하며, 향기가 맑고 강한 것이라야 좋다. 잎이 흰빛을 띠고 가시가 있는 것은 하품이다. 이 솔이 금강·묘향 두 산의 정상(頂上)에 잘 나는데 스님들이 캐다가 불전향(佛前香)을 만든다.

퇴계 이황 선생의 증조부 집인 진성 이씨 안동 주촌종택 경류정 앞, 행랑채 옆에 약 600살의 천연기념물 뚝향나무가 있다. 세종 때 선산 부사를 지낸 이정(李楨)이 평안북도 정주 판관으로 약산성 공사를 마치고 귀향할 때 가지고 와서 심었다.

이 나무를 소재로 유림이 지은 한시 120여 수를 엮은 책이 『노송운첩』이고, ‘나무 심은 지 400년 후 정해년(丁亥年) 12월’에 후손 이만인(李晩寅)이 남긴 글이 「경류정노송기」(慶流亭老松記)다. 이 정의 후손들은 뚝향나무를 ‘약산노송’이라고 불렀다. 퇴계의 조부 집인 안동시 온혜리의 노송정종택의 사람들 역시 뚝향나무를 노송이라고 부른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행포지」에 “배나무는 노송(老松)을 싫어하며 배 밭 가까이 심은 노송 한 나무가 배나무 모두를 죽게 한다”고 했다. 여기서 노송은 오래된 소나무가 아니라 향나무로 보인다. 향나무는 배 과수원 옆에 심으면 붉은별무늬병(적성병)의 중간숙주 역할을 하여 배 밭을 망치게 한다.

중국에서는 향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 ‘보배같은 소나무’라는 뜻의 보송(寶松), 둥근 측백나무라는 의미로 원백(圓柏)이라고 불렀다.

향나무 종류

향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종류로는 울릉도 섬향나무와 조선향나무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강한 바람을 받아 누워서 자라는 눈향나무, 우물가에 주로 심는 뚝향나무와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곱향나무’로 알려진 쌍향수가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가이즈카향나무와 둥근향나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가이즈카향나무는 바늘잎이 거의 없고 비늘잎만 있는 변종이다. 일본 오사카 남쪽 가이즈카(貝塚)란 곳의 지명을 딴 이 향나무는 나선 모양으로 뒤틀리므로 ‘나사백’이라고도 하며, 잔가지가 발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기가 쉬워서 정원수로 쓰인다. 때문에 항일유적지 등에 심으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대구 중구 달성공원에는 100년 넘게 자란 몇 아름되는 커다란 가이즈카향나무가 있다. 순종이 대구 방문을 기념해서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뚝향나무는 줄기가 2~3m쯤 올라온 후 가지가 수평으로 넓게 퍼진다. 안동시 주하리 주촌종택 경류정 앞의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경북 청도군 명대리에도 경상북도기념물로 지정된 뚝향나무가 도로 옆에서 자란다.

눈향나무는 정원수로 흔히 만날 수 있지만 원래는 눈주목처럼 고산 지대의 절벽지에 드물게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거센 바람을 이기기 위해 누워 자라다 보니 아예 DNA가 굳어버렸다. 경북 영덕군 경정리 바닷가 너비 약 30m, 높이 10m가 넘는 큰 바위를 눈향나무가 뒤덮고 있다. 500년쯤 전에 안동 권씨가 마을을 처음 개척할 때 바위 위에서 저절로 자라난 나무라고 전해진다. 높은 산도 아닌 바닷가에 눈향나무가 자생하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내륙에서 향나무 자생지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조상들이 잘 가꿔온 나무가 대구 경북의 서원, 종택, 재실, 산소 주변 등에 터를 잡고 있다. 그중 울진군 후정리, 울진 화성리, 청송 장전리 향나무는 천연기념물이다.

경북 시군에는 보호수나 도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가 있다. 경주 양동마을 월성 손씨 종택인 송첨(松簷)고택의 서백당 정원에 서있는 수령 600년의 향나무는 경북 기념물이다. 하늘로 뭉게뭉게 번져가는 구름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수려하다. 조선 세조 2년(1456) 입향조 손소가 이 집을 새로 짓고 기념으로 20년생 향나무를 심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의 귀암종택(歸巖宗宅)의 향나무는 누워서 자란다. 수령 350년으로 나무 높이(길이)가 12m나 되는데 종택 안 담장에 걸쳐 길게 누운 채 자라는 모습이 용이 승천하는 듯해서 특이하다.

‘소신공양’으로 기운 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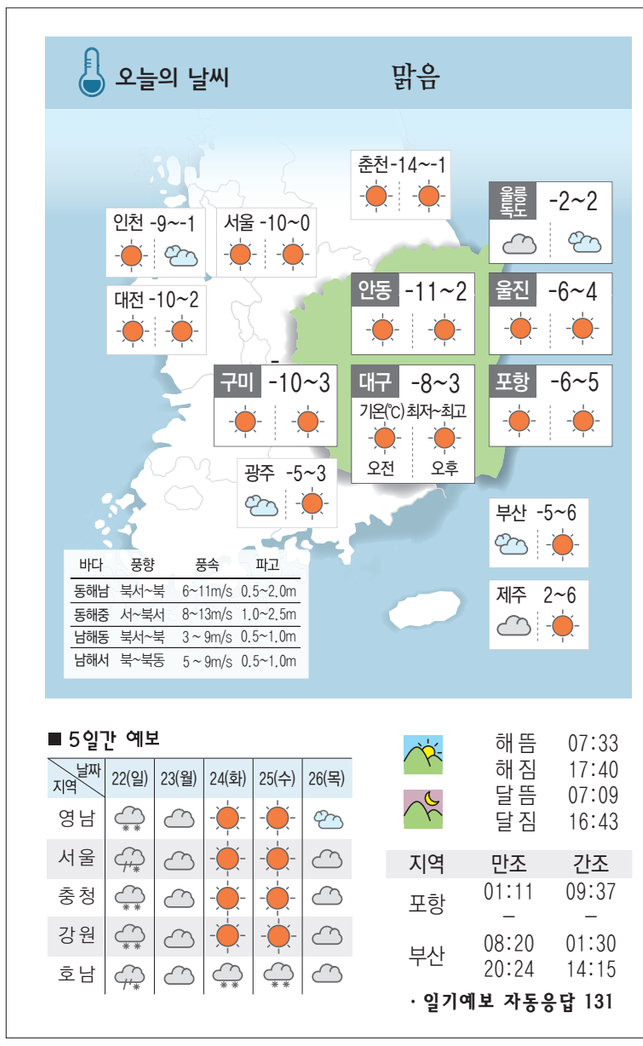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향나무는 우물가나 샘가에 많이 심어졌다. 잡귀를 쫓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청정(淸淨)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향나무는 궁궐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살림이 넉넉한 양반집이나 선비들의 정원에 심어져 정원수로 인기를 누렸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종택인 경주시 안강읍 독락당에는 집 안 곳곳에 향나무가 서 있다.

맑고 싱그러운 향을 풍기는 향나무 목재는 빛깔도 곱고 무늬도 아름다워 예로부터 품위 있는 가구나 조각의 재료로 쓰였다. 발향이라는 장신구, 염주 알, 점치는 도구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다. 불상 등으로도 특별하게 쓰였는데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은 신라시대에 향나무로 만든 불상이다. 향나무는 스스로를 태워서 향기롭게 만들고 어지러운 기운을 정화하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의 전형이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은 프랑스 작가 조르주-앙리 루오의 대표적인 동판화 연작 「미제레레」의 46번 작품에 나온다. 1번 ‘하느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부터 58번 ‘그의 고통 덕분에 우리는 치유되었다’까지 예수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전쟁에 대한 참혹성과 비탄함을 담은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1, 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세대, 지역, 젠더 갈등과 불신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우리사회에도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감동이 필요하다. 선임기자 chungham@imaeil.com

울릉군 도동 산등성이에 있는 수령 약 2천300년의 향나무.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뜸	07:33
해짐	17:40
달뜸	07:09
달짐	16:43

지역	만조	간조
포항	01:11 –	09:37 –
부산	08:20 20:24	01:30 14:15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0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 ——— 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중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당직 변호사
(21일)김정명 (22일)김종대
(23일)김종석 (24일)김주원
(25일)정재철
053)741-6338
FAX: 053)751-6006

이번주 상품 받으실 분들 문의: 053)251-1580, dokja@imaeil.com

팔공산온천관광호텔
053-985-8080/ www.palgongspa.co.kr
온천 초대권 4장
▷우정아(경산시 성암로) 시사상식 퀴즈

타올 · 우산 · 기념품 홈리빙팩토리움
053-423-2300/ www.송월홈리빙.com
최고급 죽사타올 3매입 1세트
▷김량의(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Phinehas 비느하스 유용미생물헤어제품
영바이오 / www.youngbio.co.kr / 1666-3988
비느하스(샴푸) 1개
▷강성호(대구 달서구 조암로) 시사상식 퀴즈

자연이 주는 선물 피톤치드 힐링숲 · 숲에온
010-3813-6773 / www.phytoncide120.com
피톤치드 오일 + 피톤치드 마유비누 각 1개씩
▷최유진(대구 달서구 성지로) 우리 결혼합니다

청도 용암웰빙스파 054-371-5500
청도 프로방스 054-372-5050
초대권 각 3장씩
▷박성미(구미시 신비로) 시사상식 퀴즈

GoonPark LUGE 가자, 군파크! 타자, 루지! 054-516-8888 www.goonpark.com
군파크루지 루지탑승권 주말 1회권 2매
▷김민지(대구 중구 동덕로) 시사상식 퀴즈

응모요령

▶시사상식 정답, 그림습니다, 결혼·출산 사연을 받습니다.
(이름·휴대폰 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
①우편엽서 ②이메일: dokja@imaeil.com
③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매일신문’ 검색→친구 추가→1대1 채팅
▶당첨자는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보내실 곳: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 신문국 여론특집부 (우편번호 41933)

김문환의 세계사

알함브라 궁전과 모로코…세계 최초 물시계 만든 이슬람문화

알함브라(Alhambra). 이슬람문화에 대해 잘 몰라도 알함브라 궁전은 귀에 익숙하다. 트레몰로 주법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 한 번쯤은 마음을 빼앗겼을 터이다. 스페인 출신 작곡가 타레가의 우수 어린 선율은 알함브라 궁전을 모티프로 삼는다. 알함브라를 건축한 이슬람교도는 1492년 1월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기독교 국토 회복 전쟁에 패해 모로코로 쫓겨났다.

이슬람 석조 조각 예술 백미, 동화 속 궁전 누가 건축했나?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1232년 아랍 출신 나스르 왕조는 그라나다에서 기독교 세력을 막아내고 안달루시아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며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알함브라 궁전을 건축했다.

알함브라 주역들이 모로코로 밀려나던 해 가을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콜럼부스는 인도를 찾겠다며 항해에 나섰다. 뜻밖에 아메리카에 닿으면서 지구촌 문명의 중심은 서양으로 옮겨졌다. 711년 상륙부터 1492년 축출될 때까지 모로코 출신을 비롯해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와 모로코에 700년 넘게 꽃피운 문화상을 지난 호에 이어 살펴본다.

◆스페인에 문화예술 꽃피운 이슬람 문화

스페인 남부지방으로 가보자. 안달루시아라고 부른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로 널리 알려진 도시 세비야, 알함브라 궁전의 그라나다, 고색창연한 중세도시 코르도바 등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보석처럼 빛난다. 이슬람 유적이 시내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수놓는다.

코르도바 대성당은 말이 대성당이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컸던 이슬람 모스크다. 지금도 이슬람 건축의 독특한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788년 후기 우마이야 왕조(756~1031년)의 압달라흐만 1세가 건축을 시작해 압달라흐만 2·3세, 그리고 히삼 술탄(재위 976~1009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장한 결과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 아래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를 학문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번영시켰다. 천문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중국에서 전파된 제지술이 북아프리카와 이슬람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서유럽으로 넘어갔다. 14세기부터 시작되는 서양의 문예부흥 르네상스는 이베리아 반도를 거친 제지술 덕분이었다.

모로코 출신 타릭 장군의 이슬람 세력이 711년 이베리아 반도 고트 왕국을 정복한 뒤 700여 년 넘게 지배하면서 남긴 문화유산이다.

◆기독교 국토 회복 전쟁…이슬람 세력 퇴각

모로코 땅에서는 780년경 토착 베르베르족의 이드리스 왕조에 이어 알 모라비드 왕조, 알 모하드 왕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다. 모로코의 이슬람 왕조는 1031년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해 아랍 출신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트리고 직접 안달루시아를 지배했다. 물론 기독교도의 국토 회복 전쟁 레콩키스타(Reconquista)로 이미 이베리아 반도 북부는 기독교도 손으로 넘어간 뒤였다.

레콩키스타는 718년 서(西)고트 귀족이 이슬람군을 격파하고 이베리아 반도 북서부에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건설하며 시작됐다. 10세기 기독교 카스티야 왕국이 성립되고, 1085년 이슬람 세력의 서북쪽 중심지 톨레도를 회복했다.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 피레네 산맥 부근에서도 기독교도는 10세기 나라바 왕국, 11세기 아라곤 왕국을 세운 뒤 1118년 요충지 사라고사를 되찾았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성당 내부 이슬람 건축요소. 785년 건축이 시작돼 11세기까지 증축된 이베리아반도 최대 모스크였다. 1238년 성당으로 개조됐다.

세계 최초 물시계 복제품. 1365년 모로코 페스에 설치됐다. 24개의 물잔을 달아 1시간 단위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했다. 이스탄불 이슬람 과학기술 박물관

카스티야는 마침내 1236년 코르도바, 1248년 세비야를 점령해 모로코 기반 이슬람 왕조의 안달루시아 지배를 종식시켰다. 코르도바 대모스크는 1238년 성당으로 문패를 바꿔 달고 오늘에 이른다.

◆알함브라 궁전 이슬람 세력 모로코로 이동

안달루시아의 진주 같은 도시 그라나다로 가보자. '눈 덮인 산맥'이란 뜻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 북쪽 분지에 자리한 비옥한 그라나다 평야의 시가지 동쪽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궁전이 탐방객을 반겨준다. 이슬람 석조 조각예술의 백미, 알함브라 궁전이다. 이 궁전을 누가 건축했을까?

기독교 세력이 레콩키스타의 맹렬한 기세로 남하할 때 1232년 그라나다를 거점으로 아랍 출신 나스르 왕조가 들어섰다. 나스르 왕조는 모로코 이슬람 왕조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독교 세력을 막아냈다. 나스르 왕조가 안달루시아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며 13세기 알함브라 궁전을 건축했다.

일함브라 궁전에서 정확히 서쪽으로 그라나다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그라나다 대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그라나다 대성당에 알함브라 궁전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빼앗은 여왕이 잠들어 있다. 통합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이다.

세비야·그라나다·코르도바 등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780년을 꽃피운 이슬람 유적지

기독교 회복 전쟁 이사벨라 여왕 1492년 나스르 왕국 알함브라 함락

모로코 페스 '알 쿠아라윈' 모스크 9세기 대학 교육기관의 역할 담당 1362년 세계 첫 '물시계' 만든 도시

1469년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야 왕국 이사벨라 여왕과 동쪽 바르셀로나 중심의 아라곤 왕국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

기독교 스페인 왕국은 레콩키스타를 완성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1492년 1월 나스르 왕국의 내부 분열을 틈타 그라나다를 함락시켰다. 나스르 왕국의 마지막 왕 무하마드 12세는 눈물을 머금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알함브라를 빠져나왔다. 무하마드 12세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이동한 곳이 아틀라스 산맥의 모로코 페스다.

◆중국 다녀간 중세 지리 탐험가 '이븐 바투타'

모로코 페스로 발길을 돌려보자. 859년 완공된 알 쿠아라윈(Al Quaraouiyine) 모스크가 오롯이 남아 1천 년 넘은 이슬람 숨결을 들려준다. 무엇보다 석조 조각술이 그라나다 알함브라와 닮은꼴이어서 장엄하고 화려한 이슬람 건축과 조각 문화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789년 건설된 페스의 초기 정착자는 튀니지와 이베리아 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아랍계 이슬람교도다.

수준 높은 아랍 이슬람문화의 정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튀니지 기반의 파티마 왕조가 만든 알 쿠아라윈 모스크는 교육기관 마드라사(대학)로도 이름 높다. 12세기 유럽에서 대학이 처음 등장하기 전 이슬람 문명권에서 9세기에 먼저 생겼다. 튀니지 케루안과 모로코 페스의 대학은 초기 이슬람 대학으로 유명하다. 12세기 페스는 인구가 20만 명이나 돼 당시 지구촌 주요 도시로 손꼽혔다.

페스 대학에서 공부한 이슬람 지리 탐험가가 있으니 이븐 바투타다. 1304년 대서양 연안. 탕헤르에서 태어난 바투타는 22세 때 메카 순례여행을 떠난다. 바투타는 메카를 넘어 무려 27년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터키, 중앙아시아, 인도를 거쳐 말레이 반도와 중국까지 다녀온다.

고향 모로코로 돌아와 『도시들의 진기함, 여행의 경이 등에 대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란 책을 1356년에 쓴다. 이보다 60여 년 앞선 베네치아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뛰어넘는 역작이다. 헬레니즘 시대 불가사의로 평가받던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도 기록에 남겼다. 과학자 리차드 헤닝은 바투타를 고대와 중세 가장 위대한 여행가라고 평가한다.

◆모로코 페스에서 만든 세계 최초 물시계

모로코 페스는 세계 최초의 물시계를 만든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362년에 만들어졌으니 조선시대 세종의 명으로 1434년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격루보다 72년 앞선다. 장영실의 자격루는 항아리에 물이 차면 쇠구슬이 움직여 징이나 북을 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모로코 페스의 물시계는 건물 형태다. 건물 지붕 아래에 24개의 물컵을 설치해 1시간마다 1개의 컵에 물이 차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모로코 페스의 물시계는 모스크에서 하루 5차례 행하는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신전의 의식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해시계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던 모로코는 15세기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에 밀리며 결국 19세기 말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56년 독립해 오늘에 이른다.

역사저널리스트

정답: 나스르 왕조

아파트라는 아노미

광장

황정화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장

비 온 뒤 죽순이 자라듯, 지금 대구에서 웃자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파트'다. 2008년 대규모 미분양이 해소된 후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신규 공급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미분양 아파트는 약 1만1천700가구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20%에 해당된다.(2022년 11월 기준)

1960년대 이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만성적 주택 부족에 대해 아파트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이후 2000년대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아파트는 주거의 의미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라는 광고 문구처럼 주인의 지위를 웅변해 주는 '분신'으로, 고가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 내는 랜드마크는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 주는 '징표'로 자리매김해 왔다. 반면 오래된 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은 어느새 '낙후'의 이름표를 스스로 달고 아파트 개발을 염원하게 되었다.

아파트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고, 사용 연한이 쌓일수록 감가되는 원리도 거슬렀다. 좋은 입지에 자리 잡은 고급 아파트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테니 누구나 빚을 지고서라도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아파트는 시장 법칙을 벗어난 상품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장 법칙은 작동하고 있었고 대규모 공급이 집중되자 가격은 갑자기 수요공급 곡선으로 회귀해 급락하고 있다.

시장은 종종 실패한다. 배춧값이 좋다고 농부들이 죄다 배추 농사를 지으면 배춧값이 폭락하고 결국 농부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다는 그런 실패의 이야기는 익숙하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 안 될 심각한 문젯거리다.

아파트는 어딘가에 쟁여 둘 수도, 땅에 묻어 다른 집을 짓는 거름으로 쓸 수도 없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새 아파트 분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말릴 수 없고, 토지와 자금을 확보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를 막을 도리는 없는 것일까? 토지 용도나 주거지 등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만,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한다. 층수 제한도 지방정부 소관이다. 그러니까 인구와 주택의 추이를 살펴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거나, 도시경관과 조망권, 건설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교통과 환경오염 부하를 근거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층수 제한을 풀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후하게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제공과 일부 토지의 기부채납을 근거로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허용하여 고층 아파트 건설의 길을 열어 주었다. 주택 거래가 늘어 지방세가 확충되면 더없이 좋을 일이고, 그게 아니어도 손해날 건 없으니 허가만 하고 두고 보는 식이다.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던 기대심리가 사라지면 집은 잘 팔리지 않는다.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살 수 없을 테니, 예쁘고 새것인 채로 텅 빈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에겐 경제적 손해이고, 지구적으론 엄청난 자원 낭비이며 되돌이키기 어려운 오염이다.

2023년 대구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3만 가구가 넘을 예정이다. 오늘도 대구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차곡차곡 한 층씩 쌓아 올리고 있다. 왜 계속 짓는지 의문스럽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는, 모두가 우려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못하는 무질서, 아노미 상태다.

사 설 社說

文 정권 간첩 수사 뭉개기·국정원 무력화 단죄해야

문재인 정부가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국회·국가정보원 자료 등을 취합한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으나 문 정부 때인 2017~2020년엔 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2011~2016년 총 4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7~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문 정부 때 국정원 윗선에서 수사를 뭉갰기 때문이라는 전 국정원 당국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이벤트에 집중하며 북한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방첩 당국은 2017~2018년 간첩 활동 증거를 대거 확보했지만 2023년 들어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수사가 미뤄진 이유는 문 정권 국정원 윗선의 수사 방해 때문이었다. 일선에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 등의 말로 윗선에서 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수사 결재를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간첩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았다.

문 정부는 간첩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뒀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마저 내년부터 경찰에 넘기도록 했다. 하지만 안보 경찰 수는 5년 사이 1천여 명이나 줄었다.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간첩 수사뿐만 아니라, 문 정부 시절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간첩 수사 방해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적폐몰이로 국정원 무력화 작업을 실행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실상 무장해제 수준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시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백신 접종 중요성 커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병원, 요양원,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방역 조치 가운데 30일 이후에도 남는 것은 '확진자 7일 격리'와 '병원, 대중교통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뿐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한 데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식당, 카페 등 상당수 실내 장소에서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과, 마스크 유지 정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푼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이다.

코로나19 위협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확산세, XBB.1.5 등 새 변이의 유행 등 위험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 면역력 유지 여부와 변이 출현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유행과 안정을 반복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성인 2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는 응답자는 65.5%에 달했다. '마스크 착용' 응답률을 보면, 여성(72.3%)이 남성(58.7%)보다 높았고,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왔다.

상당수 국민들이 여전히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한 것은 완전한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위험군 보호와 위중증·치명률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 속 방역이 성공하려면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20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보면, 감염 취약시설은 62.1%이나 고령자는 34.5%로 저조하다. 설 연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접종하도록 널리 알리고, 권고해야겠다.

야고부 野鼓賦

트로피와 화합주

올해 첫 국제대회 우승 소식은 테니스에서 나왔다.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의 권순우였다. 그의 우승에 팬들의 흥분이 조금 더 컸던 까닭은 본선 진출자 한 명의 불참으로 밟은 본선이었던 것이다. 대타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건 힘겹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사기(士氣) 면에서는 잃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실력 이상의 괴력이 발휘될 수 있어서다.

동화 같은 우승 스토리만큼 권순우가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 모양에도 눈길이 쏠렸다. 호주 원주민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뱀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뱀이 승천하는 형상이었는데 목재 재질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무리가 없어 보였다. 그러고 보면 테니스 대회의 트로피는 개성이 뚜렷하다. 대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容器) 형태인데 아닌 것도 제법 있다. 멜버른 서머셋 트로피는 부메랑 모양, 윔블던 여자 단식 트로피는 접시 모양이다. '비너스 로즈워터 디시'(Venus Rosewater Dish)다.

컵 모양의 대표적인 트로피로는 '유로컵'이 있다. 손잡이가 있는 은빛 대형 항아리다. '앙리 들로네'(Henri Delaunay)라는 별칭이 있다. 대회 창시에 기여한 유럽축구연맹 초대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항아리 모양 트로피로 챔피언스리그의 '빅이어'(Big Ear)도 있다. 귀를 닮은 손잡이에서 온 애칭이다.

두 트로피 모두 태생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겠으나 선수들은 굳이 축하주를 트로피에 부어 나눠 마시진 않는다. 월드컵은 용기의 기능이 없다 보니 역시 입맞춤 세례로 끝난다. 다만 조기축구회 등 아마추어 세계는 다르다. 트로피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게 불문율이다. 함께 일군 업적을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하면 알맞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화합을 위해 술을 대접에 담아 돌려 먹는다"며 냉면 그릇에 폭탄주를 돌려 마시다 물의를 빚어 원대 복귀했다. 화합은커녕 공분만 배회하니 함께 고생한 것을 위로하는 자리였는지는 의문이다.

김태진 논설위원 novel@imaeil.com

오늘의 역사

1793년 1월 21일 프랑스 국왕 루이16세 처형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39세의 나이로 파리의 혁명광장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루이 16세는 선량하고 성실했지만 내성적이고 결단력이 부족했으며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재정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부족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 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국왕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고 만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그가 처형된 지 9개월 후 역시 단두대에 올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개인, 웨딩샵, 스튜디오
광고문의 : 251-1234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33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훈기나는 조립식 전기온돌 판넬 건식 온수 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 수명과 동일
우진산업 우진훈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대구2008-3호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제 대구-북구-국제-22-0001호
한국결혼정보연합회
국제 · 국내 · 초혼 · 재혼
베트남 · 캄보디아 전문, 그 외 중국 · 필리핀 등
웨딩클럽(대구 북구 등록업체)
무자본 영업으로 사업하실 소장님들을 모십니다
국제담당 010-2666-2424
국내담당 010-7724-0089

국내 국제 한국결혼상담 초혼 재혼
전문직(의사, 법조인, 공직)
국제허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 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옥소장 전문직 상담)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가발명장 1호 천 정 일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1 • 등 • 광 • 고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 069-05-138135-001
▶농 협 : 703-01-341142
▶예 금주 : 매일신문사

NAVER 최원프리모 검색

명장가발

가발 쓰면 덥지 않습니다.
훌렁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명도 타제품보다 오래 갑니다.
스타일도 자연스럽습니다.
가발 쓰고 **샤워나 목욕 해도 됩니다.**
티가 안납니다.
가발 쓰고 CT나
MRI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최원희 명장 본인도
탈모로 고민하다 개발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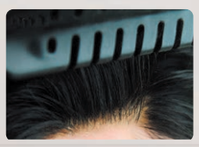
(대한민국명장 제330호 최원희)

덥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수명이 길고
스타일은 자유자재 내 마음대로
가발을 착용하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숱 조절이 가능하여
처음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36건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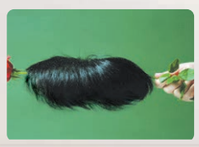
항암가발 50%할인

대한민국명장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명장가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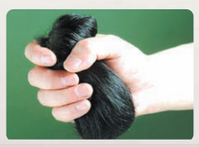


표나지 않는 앞 이마라인
앞 이마라인이 본 머리카락처럼 매우 자연스러워 가발이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자연스런 가르마
빗으로 빗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 나는 가르마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도 자연스럽다.손질하지 않아도 가르마가 되살아난다.



솜털 같은 가벼움
가발의 무게는 약 10g. 솜털처럼 가벼워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부드러운 형상기억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뛰어난 가발을 착용하고 잠을 자거나, 목욕이나 수영을 한 뒤에도 가발은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 되돌아온다.

얇아서 뛰어난 착용감
자연모를 최신기술의 인공두피인 특수소재에 심어 가발의 두께는 매우 얇다. 내 머리에 꼭 맞는 1대1 맞춤가발이라 착용감이 뛰어난다.

인체공학적 환기성
인체공학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져 모발과 맞닿은 초극세한 구멍이 땀구멍의 역할을 해서 환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산업포장 제7150호 수훈

탈모로 고민하던 제가
직접만들어 써보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명장가발
최원 프리모
Since 1982

대구반고개본점 확장이전 053)522-9000, 629-8888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63(내당동 75-35) 지하철2호선 내당역 4번출구에서 300m 직진
버스:156,250,323-1,509,성서2,급행6 버스정류장 반고개 하차

■전국 1577-0450 ■여의도점 02)780-8993 ■강남점 02)3448-8888 ■창원점 055)274-5858